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金鶴香油

事變終了時期는 勅裁로써決定

樞府質問에首相答辯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illegible] 第二回審査委員會에서 保留하여두었던 支那事變終了의 實質的時期에 關하야 左와如히對答 帝國政府의方針을 明示하였다

今回의 支那事變은 日淸、日露 兩戰役과가티 急進的으로 武力만에 依해서 解決하기는 困難한것으로 漸進的推移로써 終了될것이며 敵對行爲의 終熄과 治安回復以外 一方建設工作을 進行하여나갈 時期가 明確히 豫測될때가 卽事變終了의 時期이다 換言하면 日滿支共同으로 新建設에 着手한時期가 事變終了의 時期라고생각한다 國民政府의 內部는 자못複雜한바 國民政府自體가 解散한後 新政府에 參加하게되면 比較的事變은 빨리終了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國民政府 內部에는 共産黨系와 國民黨系가 잇는때문에 決코 一時에 事變이 終了될수는업슬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日滿支建設의 豫測이 서게될時期를 事變終了時期로 認定하고 勅裁를仰한後 決할方針이다 (寫眞은 近衛首相)

社說 產繭百萬石 達成計畫

一

農林局에서는 養蠶을 一般朝鮮農家의 副業으로서 徹底히獎勵하기 爲하야 大正十四年度에 十五個年計畫으로 產繭百萬石達成計畫을 樹立하고 그方針으로서 養蠶은 農家의副業으로하되 養蠶者一戶當 春蠶約一枚、秋蠶約一枚를 飼育할수잇는程度의 植桑을시킬것、植桑地는될수잇는대로 肥沃한土地를使用케할것、養蠶法은 一般養蠶家의 民度에 맞는方法에依할것等을 決定한後 爾來그目的達成에向하야 努力中이던바 最終年度인 昭和十四年度가 아프로一年밧게남지안흔今日에이르러서 最初目標인 百萬石達成이 到底히不可能한것이明瞭하게되엿스므로 그計畫을再檢討하는同時에 다시更新하야、最初의目的을達成하고저 成績이良好치못한 各種原因을 調査硏究中이라한다。

二

當局의 統計數字에依하야보면 昭和十一年度의 朝鮮養蠶狀況은 養蠶戶數 八十一萬六千百九戶、桑田面積이 七萬八千三百五町二反步、產繭額이 七十一萬二千一百石으로 增產計畫을 實施하든 大正十四年의 養蠶戶數 四十九萬八千百戶、產繭額 二十八萬五千百四十二石에 比較하야 養蠶戶數로 約二倍、產繭額으로 約二倍半假量增加되엿스나 產繭百萬石目標에 對比하면 아직도二十七萬七千餘石이 不足한터로서 昭和十四年度一年만으로는 到底히 그目標에達하지못할狀態라고 하는데 當局에서는 成績이不良한 主要原因으로 計畫實施以來 國庫로부터 交付하든 補助金을 昭和十二年度부터 中止하게된것 人造絹、스·파等의 增產으로 絹絲에對한 一般의認識이 變遷된것、棉花栽培獎勵에 依한 植桑減少等을 列擧하고 잇스나 增產計畫이 不良한 重大原因은 그보다도 繭價의 低廉에 依하야 棉花栽培其他穀物栽培보다 收入이 적은데 基因되는것이 아닌가하야 吾人은 當局의 考慮를 促하려하는바이다。

三

아모리 養蠶은 副業이라고하나 春蠶一枚、夏秋蠶各一枚를飼育하려면 相當히 廣大한 桑田이必要할뿐만아니라 一時에 集中되는 勞力을 要하게된다 더욱이나 朝鮮家屋構造로보아 養蠶을 失敗업시 完全하게하려면 相當한 技術을要하게 되므로 一般農家에서는 多少利益이 적다하여도 보다容易한 다른副業을 하려하는 傾向이 잇는것은 갈일수업는 狀態이며 繭價로말하여도 生絲需要關係에 따라差異가 甚하야 農民이 安心할수가 업는데다가 朝鮮의 繭價는 繭價基準決定에 際하야 製絲費用等生產費를 過重히 計上하야 農家가 恒常內地보다 不利한立場에서게되는 現狀인즉 今後로는 繭價基準 決定함에잇서서 製絲業者의 利益보다는 生產者인 農家의 利益을 먼저考慮하여야할 것이다 如何히 植桑을獎勵하고 養蠶을 勸誘하더라도 農家自身이 利益됨을 切實히 自覺하야 自進그副業에 專力하게되지안흐면 長久히 조흔結果를엇기어려울것으로 養蠶이 다른農作物보다 더有利한것을 널리認識식히는同時에 繭價의 暴落等으로말미아마 不意의損害를입는憂慮가업게하는 方策을樹立함이 어떤獎勵方針보다도 一層効果가잇슬줄로 밋는바이다。

蔣政權存續해도 新中央政權承認

樞府委員會서 外相言明

【東京電話同盟】一日午後 興亞院官制案에關한 樞府審査委員會에서 菅原委員으로부터

一、支那의 新政權承認時期

二、地方政權의 承認

三、蔣介石政權이 地方政權으로서 存續中 新中央政權을 承認하느냐 안하느냐

의三點에 關하야 政府의所信을 質問한데 對하야 有田外相은 如左히應答하엿다

一、如何한 段階에 達하면承認하느냐하는問題는 現在에는言明할狀態에 達하지안하엿다

二、地方政權承認이라는 法律的行爲를 行하지는안는다 그러나事實上 이와接觸이 만흘줄로생각한다

三、蔣政權이 地方政權으로서存續하는사이에 新中央政權을承認하느냐 안하느냐에 關하야는 只今무어라고 말할수업스나 承認함이 適當타 認定하는事態가發生하면 承認할생각이다 (寫眞은 有田外相)

貴族院과政府의 第三回懇談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과政府와의 時局에關한 第三回懇談會는 一日午前十時十分부터 貴族院豫算委員室에서開會 松平、佐佐木正副議長外에 議員百二十餘名及政府側으로부터 板垣陸相 瀧企畫院總裁出席 板垣陸相으로부터

一、北支中支方面의治安狀況

一、廣東、漢口의攻略狀況과 其後의 敵兵力配置狀況

一、蔣政權이모으고잇는 軍需品의供給通路

一、最近漸漸蔣介石政權內에서顯著한勢力을 가지게된 共產軍의 今後에 戰術에對하야考察

一、長期抗戰 長期建設에對한軍의決意及 今後長期에亘할 非常時局에對한認識

等에關하야 여러가지로說明이잇슨後 十一時지나 散會하엿다 그리고 右散會後 茶話會에 入하야 瀧總裁만이 남어잇서서 總動員法의 發動에伴할 物資調整關係等에對하야 議員側과 意見交換을 遂하엿다

東亞文化協議會

【東京電話同盟】日支의 새로운 文化提携를 目的으로하는 東亞文化協議會의 東京에서의 初總會는 一日午前十時부터 東大安田講堂에서 開催 會長湯爾和博士外에 日本側에서 副會長佐藤寬治博士를 爲始로 宇野哲人、那須浩、永井潛、酒井忠正伯、安藤廣太郞諸博士五十餘氏 支那側에서 副會長傅增湘、錢稻孫、文元模氏等二十餘名이 參集 東亞文化의 [illegible] 加藤政務次官、外相代理澤田次官等 出席下에 講堂中央의 日滿兩國旗에 全員敬禮 湯爾和氏가 會長席에 着席하자 日本側 伊東忠太氏以下二十五氏와 支那側 江人駿氏以下九氏를 各各 新評議員에 推薦 佐藤、傅日支副會長及 日支兩理事를 推薦承認하고 外、文、陸의 順次로 大臣의人事가잇슨後議事에 느러가서 左記題目을 上程하야 二、三兩日中에 人文自然兩科學部會에서 이를審議檢討하기로하고 正午閉會하엿다 評議員一同은 零時半首相官邸에서 外務、陸軍三省의 招待宴에 列席한後 湯爾和氏等은 參拜하고 이어 陸軍第一病院을 訪問 傷兵將士를 慰問 第一日의 順序를 終了하엿다

▲議案

日本側提出

一、日支兩國專門學界의 連絡提携를 緊密히하고 이에 必要한 適當한組織을 整備할件

二、中國敎育機關의 創設擴大에 關하야 調査硏究하고 그整備에 對하야 一臂協力할件

支那側提出

一、東方文化事業委員會의 復興

二、北京에 自然科學研究所를 設置할件

天皇陛下 陸大卒業式에行幸

還幸途中大本營陸軍部에도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오는 八日午前九時 宮城御出門、靑山北町 陸軍大學校에行幸、昭和十三年度第二次卒業式에 御親臨 還幸 御途中 大本營陸軍部에 돌리시옵실 一日 吩咐가게시옵섯다 卒業式終了後 午前十一時三十分 陸軍大學校를 御出門、大本營陸軍部着御하옵신後 庭內에 備置한 江陰砲臺의 敵八吋要塞砲를 비롯하야 對戰車砲、航空機等 江南戰線의 皇軍의 赫赫한戰果를 말하는 여러가지 鹵獲兵器를 天覽하옵시고 閑院宮參謀總長殿下를 奉迎하와 杉山陸相以下 陸軍首腦部에對하사 午餐의 陪食을 賜하옵신後 午後一時二十五分 御發 還御하옵신다고 承聞된다

久邇宮朝融王殿下 第一線에御轉出

金津海軍軍事普及部委員長謹話

【東京電話同盟】海軍中佐大勳位久邇宮朝融王殿下의 御轉出에關하야 海軍軍事普及部委員長 金澤少將은 一日如左히 謹話를發表하엿다

海軍中佐 朝融王殿下께서는 今年十二月一日附로서 橫須賀海軍航空隊副長의 重職에 御轉出하시섯다 惶恐하옵게도 殿下 海軍航空의 第一線에 서시게된것은 實로 恐懼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殿下께서는 昨年十一月 軍令部部員의 御資格으로서 上海戰線을 詳細히 御視察하시고 또 昨年十一月 長門艦衛長의 重職에 御補任되시어 爾來今日에 이르기까지 海上國防第一線에서 御奮勵하시든바이다

"英伊協定發效는 平和强化에貢獻"

차노伊外相의外交演說

【羅馬三十日發同盟】伊太利下院은 現制度下의 最後의 本會議를 三十日午後開會하엿다(明春三月에는 파씨쓰트組合代議員이 이에 代하는때문에 最後의 會議이다) 同日차노外相이 伊太利外交方針을 宣明하는 重大演說을 한다하야 傍聽席은 滿員의 盛況이엇다 또演說이 中繼放送되므로 街路의擴聲器前에는 人山人海를이루고 獨逸 佛國 西班牙 匈牙利等各國大使의 傍聽하는模樣이 눈에띄엿다 如斯히하야 차노外相은 此等一大聽衆을 아페두고 外交演說을하야 먼저 過般의체코問題解決에 際하야 伊太利의 動員實施의 實狀을 비로소 明示하고 다시 英、伊協定의發効를 說明하야 伊太利가 平和에貢獻한바 甚大한所以를 力說하엿다 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過般의체코問題의 責任者는 체코自身이다 卽체코는 少數民族에關한 誓約을 履行하지안코 蘇聯、체코 互相援助條約을 締結하엿스므로이다 余는 當時의 駐伊체코公使에 對하야 一九三七年十二月六日 此點을指摘하야 警告를發하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伊太利는 체코의 運命自體에는 關心을 가지지안는다 單只 체코와 第三國과의 關係에 對하여서만 關心을 가지고잇다 余는 체코가 隣接諸國과 武力으로써 相爭하느니보다 何等의協定을 實施하기를 勸告한다」

체코問題의 危機急迫과同時에 伊太利는 去九月頃 總動員을 斷行하기로決하고 새로히 三十萬의兵力을 徵集하엿다 그結果 全伊太利의 兵力은 二十五萬으로부터 五十五萬에 增加하엿다 一方海軍은 海軍航空隊四隊 主力艦及巡洋艦二十二隻及 驅逐艦百十四隻의 艤裝에 對하야 出動準備를 命하엿다 最初의計畫에 依하면 차노外相、린펜트로프外相及獨伊兩國陸軍首腦가 九月二十九日 뮌헨에 會合 체코問題를 協議하기로되엿든바 突然체임벌린英首相으로부터 뭇솔리니首相에對하야 調停斡旋을 依賴하여 왓스므로 뭇솔리니首相自身이 히틀러總統에 要求하야 마침내 뮌헨會議를 開催하기로되엿다 英伊協定은 以上가티 傳統的 英伊友好關係의復活은아니나 歐洲 地中海及 阿弗利加自治를 規定하고 英伊兩國의 關係를 道義上政治上及軍事上의 嚴格한均勢的基礎에 두는것으로 獨自的地步를占하는것이다 따라서 英伊協定의 發効는 平和强化에 有力한貢獻이될것이다

파시스트大評議會

【羅馬三十日發同盟】파시스트大評議會는 三十日 午後一時부터 뭇솔리니首相司會下에 베네차宮에서開催 파시스트治政第十七年度會議에 入하엿는데 伊太利植民地의 地位를 廢棄하고 伊太利帝國에 編入한다는 法律案審議를 行하엿다

쳐코內閣總辭職

後繼組閣은"베란"氏

【프라하三十日發同盟】하-하博士의 大統領就任에 伴하야 시로뷔內閣은 三十日總辭職을 行하고 後繼內閣 組閣은 國民同盟黨首 베란氏에 委囑되엿다

蔣政權、西南地方 經濟動員을强行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蔣政權이 最後의 據點으로信賴하는 西南支那의 開發計畫은 實業動員法의發動에依하야 一般重要物資의 政府管理를 强行하고 또工場의統制管理外 工場移轉을强行하고잇다 工場의 奧地移轉에關하여서는 香港에 經濟部와財界人과의 共同에依한 移轉事務取扱機關을設置하고 그補助에依하야 목下에는 어떠한百以上의工場이 移轉하고 雲南省政府는 그때문에 四百萬元以上을 支出하엿다고傳한다 一方西南地方의 鐵道網計畫은 十一線七千粁以上의 尨大한것이바 그中

一、湘黔線(株洲─貴陽間)一〇一〇키로는 全線에亘하야 起工하고 그中三百키로와 鐵橋는 完成하야 新化까지의通車는可能하게되고

二、湘桂線(衡陽─桂林間)三六五키로는 軍事的據點衡陽과 桂林을連絡하는線인 關係로 昨年末부터 着工하야 이미竣工運轉을開始하엿다

今後 此線은 武器彈藥供給路로서 佛國의 對蔣援助供給問題와가티 重要性을 가지게될것이다 그리고 鎭南關─桂林間의 鐵道도 佛國資本에依하야 敷設計畫이 企圖되고잇다한다

大藏省原案

明年度豫算總額 卅六億九千四百萬圓

比今年成立豫算 一億八千萬圓增

004190

【東京電話同盟】事變下第三年度로 長期建設段階에 應할 明年度豫算에 關하야 大藏省主計局에서 各省과 折衝한 計數整理를 行한 結果에 基하야 豫算을 만들고잇는바 겨우原案作成이 끗나슴으로 二日閣議에 附議承認을 求하기로되엿다 豫算總額은 三十六億九千四百萬圓으로 今年度成立豫算 三十五億一千四百萬圓에 比하야 一億八千萬圓의 增加이며 또 明年度 臨時軍事費特別會計에의 繰入金 三億五千萬圓은 所謂 名目上計算으로보아 이를控除한 明年度豫算 三十三億萬圓과 同今年度當初의 追加豫算을除한 本豫算 二十八億六千七百萬圓과 比較하면 四億七千七百萬圓의 增加로서 如何히 明年度는 未曾有의 尨大豫算을 現出케되엿다 昭和十四年度歲入歲出豫算內譯을 表示하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歲入	
經常部	二、三三七、〇〇〇
臨時部	一、三三〇、〇〇〇
普通歲入	四二七、〇〇〇
公債金	八〇九、〇〇〇
前年度剩餘金繰入	八四、〇〇〇
合計	三、六九四、〇〇〇
歲出	
經常部	一、九九〇、〇〇〇
臨時部	一、七〇三、〇〇〇
合計	三、六九四、〇〇〇

(備考) 計數整理結果 多少의異同은 未免할터이다

各省別內譯

【東京電話同盟】明年度一般會計歲出豫算의 各省別內譯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皇室費	四、五〇〇
外務省	五五、〇〇〇
內務省	二九一、〇〇〇
大藏省	一、三〇六、〇〇〇
陸軍省	四九五、〇〇〇
海軍省	六五三、〇〇〇
司法省	五二、〇〇〇
文部省	一五五、〇〇〇
農林省	一四四、〇〇〇
商工省	七六、〇〇〇
遞信省	二七八、〇〇〇
拓務省	四六、〇〇〇
厚生省	一三一、〇〇〇
合計	三、六九四、〇〇〇

(備考) 計數整理結果多少의異同은 未免할터이다

大藏省豫算內譯

【東京電話同盟】大藏省明年度豫算은 總額十三億六百萬圓의 巨額에 達하고잇는바 右는 國債費를비롯하야 臨時軍事費 特別會計繰入金 其他를 包含하고잇는것으로서 主要經費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一、國債費	七〇〇、〇〇〇
一、臨時軍事費特別會計繰入金	三五〇、〇〇〇
一、滿鐵株式拂込	四〇、〇〇〇
一、알루미늄工場新設	九、〇〇〇

拓務省明年豫算 四千六百餘萬圓

靑年移民補助增額으로膨脹

【東京電話同盟】拓務省明年度豫算은 滿洲大量移民送出數增加를 中心으로 大藏省과 折衝中이던바 靑年移民一人當 補助金增加 (從來의 百五十圓을 四百四十圓으로함) 에 基한 膨脹에 依하야 結局四千六百六十萬圓이되여 今年度에 比하야 一千五百萬圓增加를 보게되엿다 新規要求中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一、拓植獎勵補助費 國民總動員에 要할經費 物資需給調整事務費 三者合計八萬圓

一、煙草專賣益金 樺太廳特別會計繰入의 增加及 朝鮮總督府經費補充金의 增加合計三六萬圓

一、滿洲移植民에 關한經費 二、三一〇萬圓

그리고 拓務省新規豫算增加計算은 二、五八〇萬圓으로 前年度新規豫算額 一、〇八〇萬圓에 比하야 一、五〇〇萬圓이 增加이며 昭和十四年度標準豫算 (各特別會計補充金) 二、〇九〇萬圓、旣定經費減少額 一〇萬圓 總計 四六六〇萬圓이다

各省協力을要望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二日閣議에서의 明年度豫算決定을 기다려 各省會計課長의 參集을求하야 이를各省에 傳達할터인데 이와同時에 池田藏相談을 發表하야 今後豫算實行에 當하여는 時局의重要性에 鑑하야 될수잇는대로 經費를節約하고 아울러 實行上經費의 能率發揮에 努力하도록 協力을 要望하기로되엿다

新規經費는增加 旣定經費는減少

【東京電話同盟】明年度 豫算中 新規及旣定經費內譯을보건대 新規經費는 十一億圓을넘으나 旣定經費는 明年度標準豫算이 二十八億五千二百萬圓이엇는데 對하야 各省要求減及節約額이 合計三億一千七百萬圓에 達한結果 結局二十五億圓臺로 壓縮되엿다 即內譯은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新規經費	一、一六〇、〇〇〇
旣定經費	二、五三五、〇〇〇

西康省政府設立 主席에劉文輝任命乎

【香港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西康省政府는 來一月一日로써 成立키로 決定되엿는데 國民政府行政院은 西康省豫算으로서 每年三百餘萬元을 支出키로決定 省主席에는 劉文輝가 任命될模樣이다

蔣政權 新防空規則公布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敗戰政權은 今回新防空規則을公布한바 그中特히 新味잇는것은 『全政府公共建物은 空襲警報와同時에 靑天白日旗及 省政府旗를 引下함을要함』이라는 一條로 國府에서 此一條를 加한理由는 日本機에 政府公共施設이 發見되는것을 무서워하고잇는탓으로 連續하는 我軍의 猛爆에 매우 威脅을感한 國府首腦部의 狼狽狀態가 여게서도 明瞭히看取된다

夕刊後市況 一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三·四九	三三·五三
群山	三三·六六	三三·四七	三三·五四
木浦	─	─	─
下關	─	─	三五·五九
名古	─	─	三六·一七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橫濱生系	八〇七〇〇	八〇七〇〇

全國民各層總網羅

物心兩面總力集中

八相會議決定 國民總動員組織趣旨

【東京電話同盟】國民總動員組織에關한 第二回八相會議는 一日午前十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되고 八田拓相을除한 末次、荒木、有馬、木戶、永井、池田의 七閣僚가 參集 風見書記官長을加하야 前回의 作成한 總動員組織草案을 中心으로하고 先次組織結成의 趣旨及方針에 關하야 檢討한結果 左와如히決定하고 또組織大綱에關하여서도 大體意見이 一致하야 午正에散會하엿다 이에따라 今日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風見書記官長이 다시 具體案을 整備한後 鹽野法相、近衛首相에게 이에對한諒解를 求한다음 來五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 第三回八相會議를 開催하고 新組織의 機構를 最後的으로 決定하고 그다음 大略六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全閣僚의 承認을어더 實行에옮길豫定이다

◀組織趣旨

日滿支三國을 樞軸으로한 新東亞建設의 將來達成을 爲하야 全國民의 物心兩面에 亘한 總力을 集中動員할事

◀方針綱領

一、國民各自報國의 赤誠을 實現키爲한 組織이되여야할것

二、全國民을 網羅한 組織임과 同時에 眞實로 官民一體인實을 機構上에 出現시킬것

副總裁二名設置?

【東京電話同盟】國民組織體再編成問題에 對하여는 一日七相會議에서 別項과가튼 風見書記官長의 原案을 中心으로 여러가지意見을交換하엿는바 同組織中 問題가되여잇던 中央機關에 副總裁를 두되 이를二名으로하느냐 一名으로하느냐는 末次內相의意見에依하야 二名으로하자는것이 有力한데 閣僚에서 一名 民間에서 一名을取하는데 閣僚中에는 內務大臣이 이에 當키로하고 民間人에對하여는 有馬農相의主張에 基하야 內務、農林、商工等의 各省其他方面으로부터 人格識見力量잇는大臣級의 人物을 起用하야 이에當케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앗다

總裁、副總裁外 顧問制를設置

【東京電話同盟】目下八相會議에서 立案中인 國民總動員組織機構는 참으로 官民協力의 實을 擧하는 機構가 되게하기爲하야 總裁 副總裁外에 顧問制를 實施하야 副總裁인 內務大臣以外의 各閣僚及參議는 全部顧問으로하고 또各方面의 民間有力者中에서도 顧問을 選擇하게될模樣이다

今日講演會申請者

第二十二回 講演會日인 今日 講演會申請者는 如左하다

조지·에취·루-(世專校長)(米人)에 마리·언더우드(世專敎授)(加奈陀人)、이·마틴·언더우드(同)(米人)、魚丕信(世專病院長兼同醫專副校長)(英人)、伊藤伊吉氏(京城)、朴興植氏(和信社長)(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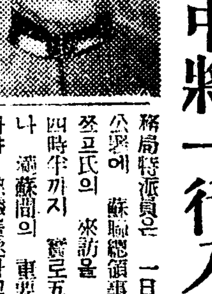
傷痍軍人相談所 職員講習會

【東京電話同盟】大日本傷痍軍人會에서는 얼마前부터 傷痍軍人相談所를 各道府縣에 設置하고 다시 支所八十八個所를 全國에 設置하야 그職員도 主로 傷痍軍人中으로부터 採用하야 保護의 完璧을 期하고잇는데 一日부터 五日間 一橋敎育會館에서 그職員講習會를 開催하기로되여 各所에서 百三名의 職員을 集合하야 一日午前十一時四十分 開講式을擧行 第一日은 會長林大將、本庄保護院總裁의 訓示 岩倉少將等의 講演이잇슨後 夕刻閉講하엿다

日滿支經濟提携에 多大한收穫 丁鑑修氏京城通過談

東京、大阪、福岡에서 開催되엿든 日滿支經濟懇談會에 出席한 滿洲、北支、蒙疆、中支의 各代表一行四十二名은 大阪懇談會가 끗난뒤 新京에 向하야 一日午後三時二十分 『노조미』로 京城驛通過 北行하엿는데 一行中丁鑑修滿洲代表는 이번 懇談會에서 各代表의 胸襟을 풀러노코 新東亞建設을 目的으로하는 日滿支經濟提携의 方針이 確立을 보게된것은 非常한 收穫이라고 하는바이다 各方面에서의 歡迎에는 感謝하는 同時에 그리고 知名한 여러분을 만나게 된것은 愉快한일이엇다 [illegible]

鎭海要港部司令官 小林中將一行入京



鎭海要港部司令官 小林宗之助中將은 野原大佐 長井中佐 岡少佐 長谷川按手等隨員을 帶同하고 一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着急行列車로 入京하엿다 二日은 各方面에 新任人事를하고 三日午後七時三十五分 京城驛發 滿津行列車로 北朝鮮地方 視察次로 떠날터이라한다 (寫眞은 小林中將)

下村特派員 滿蘇懸案을協議

【哈爾濱一日發同盟】下村在哈外務局特派員은 一日午前十一時半公署에 蘇聯總領事代理 고르보쯔프氏의 來訪을 求하야 午後四時半까지 實로五時間半동안이나 滿蘇間의 重要諸懸案에 對하야 熟議를遂하고 여러가지로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盧包水山岳地區 殘敵을討滅

【廣東一日發同盟】北江及三水東北方 盧包水山岳地區의 殘敵을 討伐中인 我三島部隊는 一日午後一時까지 氾湖圩附近에서 數百의 殘敵과 遭遇 我部隊는 巧妙히 機動力을 利用하야 完全히 敵을 包圍하야 猛攻을 加하엿다 敵은 陣地를 버리고 遁走할려고 하엿스나 包圍網을 突破하지못하고 殘敵은 盧包水河中으로 몰려가서 水面은 敵死體로채워젓다 그리고 이날의 戰鬪에서 我方은 多數武器彈藥을 鹵獲하엿고 我方의 損害는 極히輕微한것이엇다

일하는餘暇에自宅獨習으로

最新 中學講義錄

◇어데보다學費가第一低廉
◇어데보다卒業이第一早速……
◇內容이 쉬워 알기쉽다!

每日一時間 의工夫로 中學을卒業할수잇다!!

우리最新中學講義錄은 文部省改正中學令에依한 日本最初의中學講義錄으로斷然! 새로운敎授法과他에類例가업는 低廉한學費로 諸君은 일하는한便 自宅에서 겨우 一個年의 스피-드로 中學의 全科目을 卒業할수잇다。 善은서둘러實行하라、 詳細는只今곳葉書로、 東京市牛込區台町十四

中學講義錄도 여러가지잇스나 斷然이것이조타

大日本通信中學校로 申込次第獨學者의進路를 詳細하게說明한內容見本一冊을無代進呈함。

鐵道員이되는第一의捷徑

鐵道員受驗講義錄

日本第一

○나도되고십흔鐵道員
어데보다도알기쉽다
어데보다도會費가싸다
어데보다도卒業이速하다

滿鐵을비롯하야全國鐵道員大不足 近規募集小學卒業生 試驗合格하면一躍 鐵道員으로採用되여 將來는車掌、機關手、助役驛長까지出世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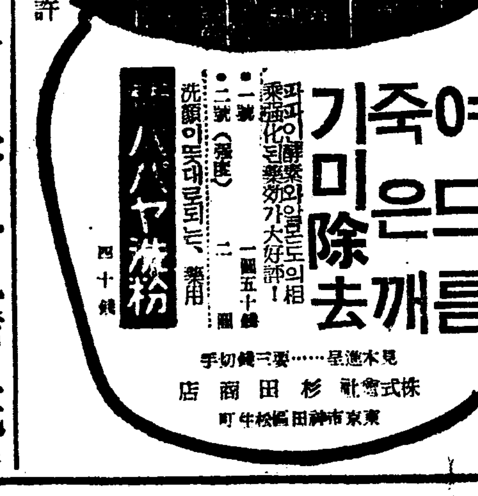
採用試驗目前에臨迫 準備는只今곳

見本無進呈

葉書로申込하시요 東京市牛込區台町十四 日本鐵道敎育會

藥用크림

아모-판파야



見本進呈……三錢切手
株式會社杉田商店 東京市神田區松住町

專賣特許

眼科 公眼科醫院
京城府齋洞町十字街 電光二〇七
醫學博士 公炳禹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產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貸付을低利迅速히取扱합니다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小學教科書統一問題

學務局諸般實情參酌 "不統一"로態度決定

"內地와同一"한教材는朝鮮兒童에게不相符 朝鮮內書籍業者의不安一掃

지나사월일일조선교육령이 전반적으로 개정되며 남녀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또는고등여학교로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각각변경됨에따러서 그내용이라고도 할수잇는 교과서에 대하야 중학교는 일부면가지 국소부분을제하고는 대개 거의다 내지중학교과서와 공통되는 터이죽 이것은 문제가안되나 소학교는 전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교과서를 사용하야 학교의 명칭은 내선통일이 완전히되엿스되 내용은 서로갓지안흐므로 반다시통일하야 명실과함께 할것이라하야 지난사월이래 전조선서적업자들가에서는 여러가지로 물론이되여오든중 명춘신학기를압두고 대판(大阪)국정교과서 편매업자들이내선소학교교과서통일운동을 이르킨다는소문이 현해탄을건너 조선에드러오자 요즘 조선내서적업자들이 일대불안을 가지고 분기하야 그반대를 표명한사실이 잇섯는데 이문제는 연구편게당국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한결과 제반실정상 통일하지안키로 결정되엿다

그통일을 중지한내용이죽 특히 소학교아동의 교과서는 아동의생활에 상부해야만될뿐아니라 "가나"(假名)사용기라 여러가지국어로된 내용이 어려워서 당장 조선아동에게 교수하기에는 다소 곤난할듯 하다는것이니 이총독부편집과 조선서적인쇄회사 조선서적업자등 각방면을조고돌든 이우울한문제도 이로써 위선일단락을고하고마럿다

鹽原學務局長 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소학교과서 내선 통일문제는 그러케 표면화하야 떠들만치 진전된것이 아무것도업다 사실상으로 가나(假名)사용정도가 좀도파서 조선인소학아동에게는 적당치못할뿐 아니라 교수하는데도 효과적이 못될뿐하기때문에 통일안키로하엿다 중학입학이 임박한 작년도에 학교수해도 조흘가 생각한일은잇스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한일은업다 이번 동경(東京)가서는 이문제는 조금도접촉하야보일도업고 또 최초갈때에 예정도업섯든것이다 그뿐아니라 도라올때 부산(釜山)에서도 기자단들을 회견하고 통일하지안는것을 언명한일이잇는데 세상에서 이러니저러니 공연히떠드는것은 알수업는일이다

醉翁轢死

일일오후 일곱시십오분경해서 부내 충신정(忠信町)이십삼번지 의취신삼봉 손보국(孫輔國)(三五)이가 경전제칠십일호전차를 운전하야 광희정(光熙町)에서 왕십리(往十里)를향하야 진행하던중 신당정(新堂町)이백육십오번지아페 다다럿슬지음 어떤 술이취한듯한 육십이、삼세 … 들되여 안면을 부다치게 그대로 인사불성이되엿다 곳피해자를 민병원에 실어다가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그대로 절명되고말엇다 소관종로서에서는 방금범기운전수를 데려다가 엄중취조를하는한편 피해자의 신원을조사중이다

國境地方鐵道 從業員慰問

철도국에서는 예년에 따라 영하이삼십도나되는 혹한지대에서 일을하고잇는 철도종업원에게 금년에도 위문원을 파견하기로되엿는데 위문품은 특별히선택한 결과 따스한 풋솜조끼를 보내기로결정하엿다 위문품을 보내구역은 혜산선(惠山線白水驛以北) 백무선(白茂線) 만포선(滿浦線前川驛以北) 각지이며 위문품을 바들인원은 전기각선에서 근무하고잇는 종업원 일천삼백여명이라한다 혹한지대 휴한지방의 철도종업원들은 일년에 한번씩 차저주는 이위문품이 오는것을 비할때업는 기쁨으로생각하고잇다한다

橫暴한家主 移徙翌日에明渡要求 借家人은損害賠償請求提訴

수일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는 부내종로구정목 삼이번지 삼십일호 이택형(李澤亨)씨가 명륜정(明倫町)일정목 삼십삼번지 이철호(李喆鎬)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 접수되엿는데 소장에의하면 원고는 지난구월사일 피고와사이에 피고소유 혜화정(惠化町)이십이번지 칠십사호 조선집을 빌리되월세 오십원에 보증금천원을 내기로 계약하고 원고에게 일천오십원을 지불하엿다 계약내용에는 피고가 꼿집을 팔아버리면 원고측의손해가 너무큼으로 일년내사월까지 피고의 형편으로가옥명도를 할때에는 피고가이사비용을 물기로하엿다 그런데 계약한지 사흘후이고 이사한다음날인 칠일 피고는 원고에게 게림리집을 소외(訴外)안기순(安基舜)에게 팔아버리고 즉일로가옥명도를 요구하엿스므로 원고는 할수업시 구월십구일 가옥의일부와 시월십칠일 남어지전부를 매수인에게 명도하엿다는데 이사용료와 이사갈때에 든비용을 바다달라는셈이다 아무리 흉악한 집주인이라도 돈몃푼 더벌이를 내해를 아버리는일은 드문데 천여원돈을 흉밧고 그다음날 팔아버리고마는 처사는 악덕가주가 발호하는 작금 일반의 주목을끄는소송이다

夫婦싸움끗헤 漢江에投身

삼십일오후아홉시경 한강인도교우에서 강물에투신하려는 소부를 마침순행하던 용산서원이 발견하고 본서로데려다 보호하엿는데 이는 부내아현정(阿峴町)이백일번지 강외천(姜外千)(二六)의처 백석분(白石粉)(二三)으로 내외뜻이맛지아니하야 싸움이자질을비관하고그와가티 자살을하려던것이다한다

龐大한産金送電線網 初年度工事各地에서着手

沿線農村電化에一大貢獻

소화십칠년도까지에 연산칠십오돈(噸)의금을 캐내자는 산금오개년계획에따라 그목적을 달성하는데가장중요한 시설인 산금업자에게싸고도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랴는 산금송전선망(産金送電線網)은 체신국의 손으로 금년도부터 삼개년계획의총공비삼천육백만원의 거액으로 공사가시작되엿다

송전선로연장칠천키로 공급총전력오만키로와트에 달하는이계획에는 첫해예산으로 팔백만원이 차례젓스나 사변에의한 물자동원때문에 공사착수가 예정보다 늦어젓스며 물까가 비싸진관계로 전체계획에잇서서도 지금현상으로간다면 약일할정도 서로 기타공사를 주리지안흐면 안될것이 주목된다

체신국에서는 첫해공사로 예로 근변의 비교적공사가 쉬운곳부터 착수하야 명년도에는 일천륙백만원의경비를 가지고 평안남북도、함남、강원각도에 연장약삼천키로의 송전선망을 느리기로되엿고 후년도에는 일천이백만원으로 남어지공사를 할터임으로 완성되는날에는 조선산금계에 일대위력을 발휘할것은 물론 송전선선로에 당한 지역의 농촌에도 전기를 공급하기로되엿슴으로 농촌전화(農村電化)에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각방면의 기대가 자못크다

경성변전소수 십팔개소중 다음 여덜개소를 위선 연장일천오십키로를 선정하야가지고 금년사월부터 실시측량에 착수하야 얼마전에 전부의 설계를 마치고 지금청부업자의 손에서 주야겸행으로공사가진행되고잇는데 변전소(變電所)를 마흔여섯군데에나 만들어야되는 난공사임으로 전기를 보내기 시작하는것은 명년도말부터의 예정이다

첫해공사지는 대개가 평안남북의 준험한 지대에 걸하야 다음과 갓다

一、端川─龍川─日建
二、勝湖里─成川─仁興─馬場
三、寧越─春山─五峰
四、遂安─銅店
五、北鎭─殷鎭
六、雲山─安興─价川─順川
七、豐山─蟲城─嵒洞
八、大田─永同─梅谷─茂朱

平壤冷麵配達大結束盟罷

【平南支社電話】평양시내에잇는 사십구개소 냉면집의 종업원 이백사십명이 일일인상을 시켜달라고 일일부터 일제히 동맹파업을 단행하야 이날평양시내에서는 명물인 냉면을먹을수가업서는 데되엿다 이파업의 경위는 지난달 십팔일에 면옥(麵業)노동조합 이백사십명이 총결속하야 물까고로 팔미아마 도저히 그전 임금으로는 생활을 해나갈수가 업슨즉 일할로 하루임금을 삼전식 올려달라고 면업조합에 진정을 하엿섯다 이진정을 바든 면업조합에서는 곳 비밀위원회를열고 협의한 결과 그요구가 타당하다고하야 십이월일부터 인상해주겟음(승락)하엿섯는데 작일이되자 그전 약속을 이행하지안코 오는십일의 면업조합정기총회에 걸어서 결정하겟다고 애매한 회답을하엿슴으로 드듸여 파업을한것이다 이와가티 전평양냉면조합원이 파업을 단행하엿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사태를 중요시하고 쌍방을 불러서 절충시킨결과 오는십일부터는 전부요구임금을 인상하여주기로 타협이되여 이날오후에는 모다종전대로 취업하게되엿다

年末報國週間

贈答品全廢를强調

총후보국강조주간은 오는십오일부터 이십일일까지 일주간 전국일제히실시하기로 되엿는데 경기도에서는 일일오후두시부터제일회의실에서정보위원간사회를열고 이실행방법을 협의하고 금주간중에는 연말연시 증답품전폐를 강조하야 장기전에 대처할각오를 인식시키기로 되엿다

賞與金、特別手當으로 國債나、貯蓄債券

官公吏實行規範通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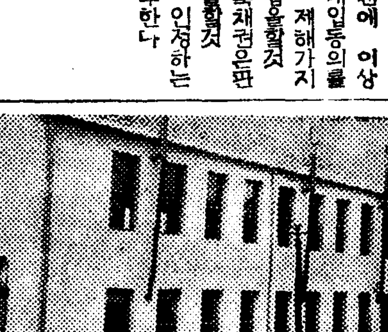
총독부에서는 이번 연말상여에 관공서 직원에 국채혹은 저축채권을 사는표준을 다음과가티결정하야 삼십일부 총독부각국장 관방 부과장、제일소속관서장에게 정무총감의 통첩을 때웟다 그리고 은행、회사、공장각종단체등에서도 이취지에따라 채권을사게하고 시국관게로 은 선한사업방면에서는 특히 그매입률(買入率)을 노피기로하엿다

一、상여금과 기말(期末)수당임시수당으로▲백원미만되는자는 임의액수로하고 백원이상 이백오십원 미만되는자는 일할이상▲이백오십원이상 오백원 미만자는 일할오분이상▲오백원이상 천원미만자는 이할이상▲천원이상은 사할이상
二、하급자에게는 저축채권을매입시킬것
三、상여금을지급하기전에 이상 표준으로 채권을 매입동의를 어더서 지급액에서 제해가지고 국채의 공동구입을할것
四、구입한 국채、저축채권은 관공서마다 공동보관을할것 그러나 특별한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에게 교부한다

女子醫專移轉

今日明倫町新校舍로

그동안 연건정(蓮建町)경성의전교사의 일부를빌려쓰고잇던 경성여자의전(女醫專)에서는 벌서 전부터 신축공사중에잇던 명륜정(明倫町) 고등상업학교(高商) 뒤의 새교사가 낙성되여 일일에 생직원 전부가 그리로 이사를 하엿다 그리고 명년봄 고상이 청량리(淸涼里)방면으로 이사하여 그교사전부를 바더가지고 부속의원을 꾸밀예정이라고 하니 형식과 내용을 아울러가춘 훌륭한학교가 될날도 멀지안헛다 할것이다(사진은이전한신교사)



府內私立 初等學院學藝會 今日府民館서開催

本社後援

경성부내에잇는 오십여 사립초등학원으로조직된 동연합회주최인 제일회 경성사립초등학원연합학예회는 본사후원으로 드디여 금이일오전열시부터 태평통 부민관대강당에서 열린다 사립초등학원이란 대개는 구차한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운동장기타 학교설비가 빈약하지못한가운데에서도 "아는것이힘이라"는 표어미테서 가르키는선생이나 배우는 학동들사이에 혼연일심(渾然一心)으로 배움의길에 매진하는만큼 그들의순순한 재조와 힘은 오히려 놀랄만한것이 잇슬것으로 이런모힘이 처음인만큼 각방면의기대가크다

더욱 이날"푸로그람"에등장하는학원은 오전열일곱 오후열여덜개처로 나누어져잇는데 일문일자그룹이 빠내는가지가지의 재롱은 마치 경연대회(競演大會)의 장편을 이룰것으로 흥미를 끄으는바이다

川島聯盟總裁 六日、推戴式擧行

精神運動、第二段階에

전조선민심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지령하에 집중하고 민중애국심의 유기적발로를 활발케하려는연맹의 기구확대강화는 천도(川島)대장의총재로 실현되여 오는십이월육일 총재추대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즉천도대장은 내선이래 이미일주간이 경과하엿고 그간연맹기타각방면의 열의에동하야 드디어연맹의 최고지도자의지위에 취임할것을 결정함에이른것으로 연맹에서는 명이월일일 오전열시부터 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이사회를열고 규약개정과 총재주천의건을 부의하고 이일에는 제일회의실에서평의원회를연다음 이사회장으로부터 보고승인을구한후 총재추대에관한 연맹의제수속을료한다 그런데 지금 북선을시찰중인 천도대장은 오는사일 귀경하므로 연맹에서 정식으로 총재취임을 간청하고 오는육일 오전열시부터 총독부 제일회의실에서 추대식을 거행하려는것이다 추대식은 연맹의원 전원이참렬하야 엄숙히거행할터인데 이로서 연맹은 순연한 민간정신단체로 장기전하반도의 정신운동총본영으로 제이단의 중요를 할것이다 또한 천도대장은 총재취임과동시에 전조선민중에게 성명을 발표하야 격의를 괴려 민중의 분기를 촉진할것으로보인다 (사진은천도대장)

專賣聯盟에서 川島大將第一聲 來十日結成式場에서

천도(川島)대장은 오는육일추대식에의하야 정식취임하는 동시에총동원 연맹은 드디여활발한 활동에드러가기로되엿다 때맛츰전조선 전매국관게직원 연초소매인 연초경작자 연합이부등이 십만명의 회원을가지고세상에나오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전매연맹(朝鮮專賣聯盟)은 오는 십일 부내의주통전매국공장(義州通工場)집회장 에서 영천(鈴川)전매국장 이하 대표자이 수백명이참집하야 성대한 결성식을거행하기로되엿스므로 천도대장은 조선연맹 총재로서 임장하야 일장의 훈지를할터인데 이결성식에서할 천도대장의 훈지는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제일성인만치 금후국민운동의 구체적방향을 선명할모양이다

理事會에서 滿場一致可決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에서는 일일오전십시부터 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이사회를열고 연맹규약의 개정을 결정한후 이개정규약에 의한 초대총재로는 조선에 연고가깁고 덕망이 놉흔 천도의지(川島義之)대장을 만장일치로써 추대하얏다 그리하야금 총동연맹에서는 개정규약의 내용에의하야 총재를 중심으로그 사명달성에 매진하기로되엇다

人氣의王者는 蹴球와自轉車

今年京城運動場總入場者數 比前年 四萬餘名增加

약진 또약진을 거듭하고잇는 스포─츠조선의 발전상을 엿볼수잇는 호재료──스포─츠의 전당인 경성운동장을 지난사월삼일에열린 입교대학(立敎大學) 럭비초빙전으로 첫막을 열어 십일월 이십칠일에열린 전일본 중등럭비─예선대회로써 종막을 고하엿는데 여덜달동안에 거행된 각종경기의 유료관람자 와밋 경기자의 통계를보면 총입장자가 대인이 이십사만사천팔백열두명이요 소인이 팔만삼천구백 칠십삼명으로 총합계는 삼십이만팔천칠백팔십오명에 달하는바 금액으로치면 대인오전 소인이전으로 약일만이천원의 수입을보이고잇는데 이것을 작년에비교하면 사만여명 (작년입장자 이십팔만팔천칠백삼십오명)이 증가되엿다 이와가티 증가된것은 실로 스포─츠게의 향상발전을 말함이라하겟다 그리고 매월 입장자수를 본다면 스포─츠씨─즌인 칠월의 칠만육천팔백명이 수위에 잇스며 하루동안에 가장 입장자가 만흔날은 오월일일에 열린 자전거대회(自轉車大會)이며 다음이 사월삼십일일에 행한 본사주최의 제일회 도시대항축구전(第一回 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때의 칠천삼백육십일명이엿섯다한다 이것으로보아 조선에잇서서는 축구와 자전거가 가장 대중적인끼를 이끌고잇슴을 증명하고잇다

賣惜事實이綻露

石炭商六三商會支配人取調

본격적인 석탄스토브기를당하야 석탄을 매석(賣惜)하는 석탄상이발호하야 각경제경찰의 신경을날카롭게 하고잇는이때──일본정서경제계서에는 서계정(西界町)구십부번지 유삼상회(六三商會)지배인 매목(梅木)모를인치하야매석혐의로 취조를 시작하엿다

유삼상회는 경성역구내에 치장을둔 경성의 유수한석탄도매상인데 그상회에서는 최근화차부족으로 팔미아마 만주탄과 북조선탄이 경성에 드러오지못하고 석탄이모자라서 쩔쩔매는현편에 잇슴을보고 응당히 아프로는 석탄기근이 심각하야갑시 올려갈것을 노리고 대련(大連)방면으로부터 인천에 드러오는 면선에 약이백오십톤의 석탄을 수입하야다가 인천(仁川)하치장에 너허두고는 팔지안코잇던것이 삼십일 그상회이부김동석(金東錫)외두명이 석탄배달도중에 석탄을 매서술을 바더먹다가 본정서에 채포취조중에 매석 사실이 탈로되엿다

알미늄으로 一錢貨鑄造

이번에 일전짜리돈을『알미늄』으로 만들기로되여 지난이십팔일부터 실시할것을 관보(官報)로 공포하엿다 주화의 품질은 한그람조금되는(〇·九그람) 직경『십칠미리메돌(一七·五미리메돌)』 라하다 조선에는 일월이후에나 들어올듯하다고한다

絃樂四重奏團演奏會

베토벤、하이든、모찰트 世界三大樂聖의名曲演奏

入場料 一般 七十錢 學生生徒 五十錢

第一바이올린 桂貞植
第二바이올린 文學準
비올라 安聖敎
첼로 金泰淵

今日!(午後七時) 於府民館

主催 京城音樂專門學院
後援 朝鮮日報社

中等籠球聯盟戰 第18日

京師追及熾烈 培材軍이惜敗

普成과協實도各勝捷

激戰十八日을 마지한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二回 京城中等學校籠球리─그戰은 一日午後六時四十一分부터 同會館室內코─트에서 擧行된바 第一次戰에는 普成이 京工을一蹴하야 七戰四勝三敗하엿스며 第二次戰에는 協實이 靑學을 물리처 六戰四勝二敗하엿고 第三次戰에는 京師가 接戰끗테 培材를 擊破 得勝하야 七戰二勝五敗하엿다 그리고 今二日에는 京畿對中央戰과 第一部의 全勝팀 徽新對靑學戰의 두게임이 열릴터인바 이날徽新이 靑學을 이기면 設令 五日에 行할 對培材戰에 惜敗하드라도 六戰五勝一敗로 第一部에 覇權을 獲得하게되엿다

中學籠球聯盟戰第18日現在

【第一部】

順位	校	比率
2	大東	0·667
5	培材	0·500
1	徽新	1·000
7	京師	0·286
2	協實	0·667
2	中東	0·667
6	儆文	0·333
8	靑學	0·000

【第二部】

順位	校	比率
1	養正	1·000
4	普成	0·571
3	養正	0·714
4	道	0·571
8	電	0·143
2	中央	0·833
9	京工	0·000
6	普隣	0·333
6	京畿	0·333

普成33 (10 23 / 8 5) 13京工

【第一次戰】第二部…普成對京工戰은 同日午後六時四十五分부터 金鼎燕、崔濟榮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普成軍이 이겻다

反	後	前	【京工】		【普成】	前	後	反
1	2	2	朴	F	具	0	2	3
4	2	2	金	F	金	0	0	5
				F	朴	3	0	2
0	4	2	韓	C	崔	2	1	4
0	0	0	金	G	劉	2	2	8
0	0	4	李	G	吳	2	3	0
0	0	0	黃	G	姜	3	2	1
5	8	10				12	10	23

協實37 (20 17 / 12 14) 26靑學

【第二次戰】第一部…靑學對協實戰은 同日午後七時三十一分부터 崔濟崑、金容兩氏審判下에 열리바 結局三十七對二十六으로 協實이 이겻다

反	後	前	【靑學】		【協實】	前	後	反
2	2	0	韓永福	F	韓晉湜	2	2	6
4	4	0	朴	F	林	3	3	5
3	0	9	金	C	尹	1	9	6
4	6	2	梁	G	李	1	1	0
0	0	0	林	G	金成泰	1	5	0
4	0	3	金	G	林	0	0	0
0	0	0	姜斗熙	G				
17	12	14				8	20	17

京師54 (32 22 / 23 23) 46培材

【第三次戰】第一部…培材對京師戰은 同日午後八時二十八分부터 余胤錫、方元淳兩氏審判下에 열리바 結局 五十四對四十六으로 京師가 培材를 擊倒하엿다

反	後	前	【京師】		【培材】	前	後	反
1	2	9	羅五福	F	李廷九	8	2	2
1	2	0	郭英信	F				
0	0	2	邦德天	F	徐永錫	8	0	2
2	2	0	李啟衡	C	張元國	0	0	0
1	7	4	川本	G	張承煥	0	0	0
				G	張安永	3	7	2
0	2	4	松田	G	梁錫春	4	4	3
5	32	22				23	23	9

第二回레스링紅白戰

中央基靑主催의 第二回 레스링 紅白戰은 來三日午後二時부터 鍾路靑年會 柔道場에서 擧行할터인데 斯道普及을 위하야 多數來觀을 歡迎한다고한다

專門校蹴球 明春、東京서開催

大日本蹴球協會에서는 蹴球技의 強化策으로 從來에잇서서 看過되엿던 實業專門學校의 實力強化를 圖謀하기위하야 東京商大主催의 全日本高商大會와 東大主催의 全日本高工大會를 一括하야 協會主催아래 全日本專門學校蹴球大會를 明年一月東京에서 開催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이 計畫은 文部省令에 依한全日本의 모든專門學校와 大學專門部를 網羅하야잇는關係로 强化陣의 出場도豫想케되며 每年一月에 열리는 東大主催의 全日本高校大會에 對抗하야 큰期待를갓게한다

▲期日=昭和十四年一月一日부터 七日까지 ▲場所=東京 ▲參加資格=文部省令에依한 各種專門學校와 大學專門部로써 協會加盟團體일것 未加盟團體는 加盟手續과 今年度協會加盟費七圓을 納入할것 ▲參加費不要 ▲申込期日=十一月廿日

明治神宮大會開催

지난번 第十回明治神宮體育大會의 開催費五十萬圓을 十四年度 豫算에 計上하야 一蹴된 厚生省에서는 其後復活要求를提出하엿던바 요지음 大藏省會議에서 十餘萬圓을 承認하엿스므로 一日의閣議에서 正式으로決定한後發表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明治神宮體育會로부터 移管되엿스나 豫算關係로 一時開催를 躊躇하엿던 明年度明治神宮大會도 겨우 厚生省의손으로 다시금 開催하기로되엿다

今日의運動

▲籠球=中央基靑主催 第十二回 中等學校籠球리─그第十九日… 京畿對中央(午後六時半) 徽新對靑學(午後七時二十分)以上基督靑年會館內 (十錢均一)

糧友會

發會式과諸行事

기보=장기전쟁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띄고 창설된 양우회(糧友會)조선지부의 발회식은 오는사일 오후네시반에 부내태평통 체신사업회관에서 거행하기로 되엿다 이날회식에는 양우회장 소야사중장(小野中將)일행이 동경으로부터 입국하야 오게될터이며 남총독 중촌조선군사령관을 비롯하야 각처명사제씨가 입석할예정이라한다 또이보다압서서 오는이일부터 삼일 오일 육일까지 나흘동안은『라디오』로써 식량문제에대한기념강연방송이 잇슬터이며 발회식당일인 사일오후한시부터 오후네시 십오분까지의 사이에는 조선일보사강당에서 강연과 영화회를 다음과가튼 순서로개최하기로되엿다한다

▲講演=時局과食糧問題 糧友會理事 八江氏 ▲朝鮮의 食糧資源과 榮養問題 京城醫專校長 佐藤剛藏 ▲銃後國民食의 改善에對하야 陸軍主計少將 丸本彰造 ▲映畫=榮養이야기▲主食改善 ▲赤의脅威

총딱

○ 천여원의 큰돈을 훔쳐더서 주인을 울렸다든 소녀 사례금은 가난한이에게 동정、
○ 수신대학『소매치기 과(科)』에 교재(敎材)로 제공함。
○ 가난파벼에 조금 자식을 숙인 아비、
○ 하로밤이 멀어라 빼저리게 울고울어 참회、
○ 그도 사람이어니 팔이 내굽을 도리는 업슬밖、
○ 악덕상인은 용서업시 처벌하라고 도통첩、
○ 대판절 태산이 밤낭을 기는 하는데 실속을 봄이가 잇는지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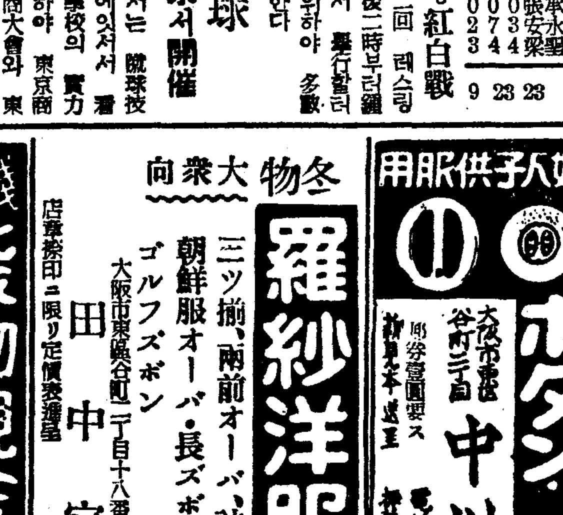
曆

▲十二月二日(金曜)陰十月十一日 ▲壬戌辰 ▲日出午前七時二十九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二分 ▲日入午後 五時十六分 ▲月出午後一時四十三分 ▲月入午前一時三十六分 ▲滿潮(仁川)午前一時─午後零時二十分

今日天氣 小雪、曇

羅紗製品卸 高級冬物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
羅紗製品卸 多田喜昭商店
電話東一七九番 (商店二限リ相場表見本進呈)

고무活字 고무活字
價本으로한 其他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
製造元 大阪市南區鰻谷西之町六八 吉川商店

カ一ナ有名一番 ナ一秀優一番
ハーモニカ バンド アリロス

ギター界ノ代表 シレネギター
中井樂器店

入袋錢 物現金問屋
大阪市東區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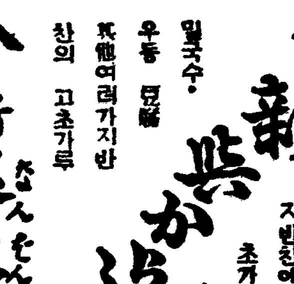
冬物大衆向
羅紗洋服荷揃
三ツ揃、兩前オーバ、詰衿上下
朝鮮服オーバ・長ズボン・ジャンバ
ゴルフズボン
大阪市東區谷町 田中宇商會

婦人子供服用
ボタン・バックル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中川釦店

人絹綿布端切各種卸
大阪市南區 國津村合資會社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 製菓材料 菓實香料
大阪 西本商店

新與 蕃椒粉 고추가루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 製造本舖
德元商店


新與からし

中部版

牛市場업는仁川에 急速實現을促進

移出牛買入과精肉供給에絕對로必要

남은問題는仁川府의裁斷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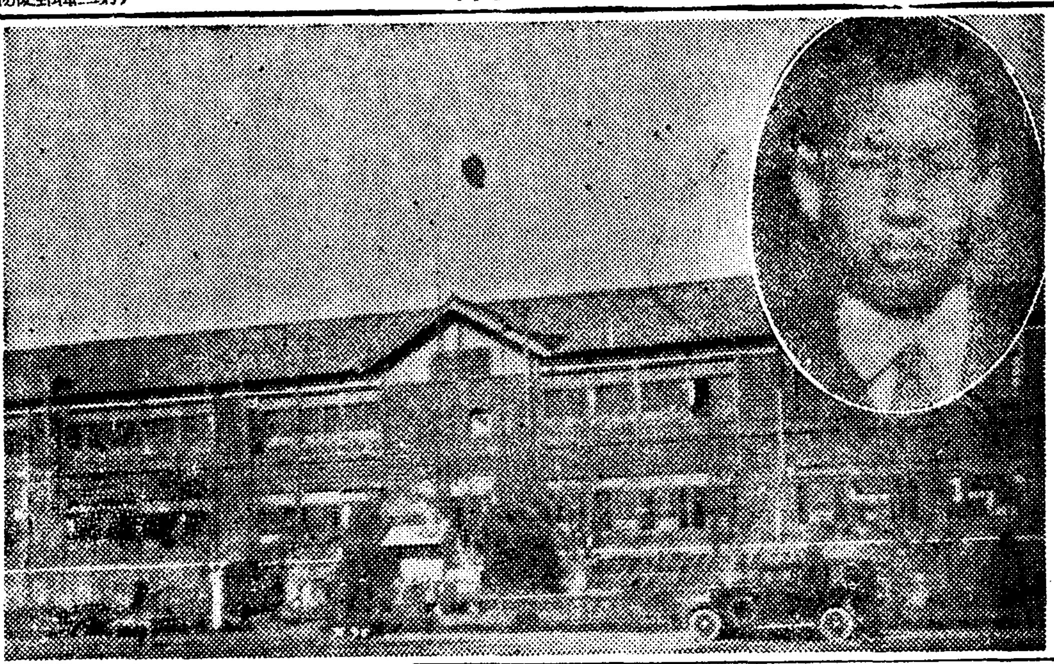
【仁川】인천부내에 소규모의가축(家畜)시장만이잇고 우시장이 업서서 인천항으로서 매월이출하는소도 우시장이잇스면 그성적이 더욱 량호할것이며 따라서 인천부내에서 소비되는 도살수도 인구증가에따라 격증하는 현상인데 인천에서 소한마리를 사자면 경성 가축시장에가서 사게됨으로 소한마리에 칠십원정도이면 경비가 십원이상이 소비됨으로 인천부내의 우육상 조합에서는 이에대하야 전시하에 소비절약을 하는이때에 비용이파다하다하야 인천부당국과 감판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우시장설치를시급히하여달라는 요망이잇섯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이에대한것을 절실히늣기고 오는삼일오후세시에상업부회를개최코 우시장설치에대한 타합을하야 부당국에 시급히설치를요망하리라는바 이문제는 인천에국한된것만이아니고 내지에이출우를 증가시키는데잇서서도 긴급한 문제이며 인천부내의 우육상에게 면의도살을 [illegible] 일반의기대가 크다는바 인천부 당국에서 어떠한 재단을 할는지 주목되는바이다

發展仁川에對備 商工相談所新設

商工業者의指導機關

【仁川】무역항 인천으로서 상공을 도모하고저 각방면에 대한 공도시로 면목을 일신시켜서 운흥이 일층왕진하야 최고정점에 [illegible] 가세로 그발전에 도달하기까지 관계자로서는 [illegible]

전국적으로 [illegible] 상공회의소에서는 전조선으대도시의 하나로 [illegible] 시켜서 의원각자의 활약을 보고 [illegible] 경제하에 [illegible] 일반상공업의 원활을 도모키위하야 그회의소에서는 기종을 확장시켜서 각지와 상공연락을 취하려고 계획중이든바 지난[illegible]일에비로소 개정을하엿다 시국하에경제적세의 추이와 특히중소상공업자의생활에 대하야 [illegible] 문제지식의배양에 노력하야 어느때나 불편하고 못든데는 용수키로되며 이사업에 [illegible] 각계의편의를 도모하리라한다



蘇島京東小學校의 廿五週年記念式

十年勤續한崔訓導를表彰

【蘇島】시외뚝도에잇는 경동공립심상소학교(蘇島京東小學校)는 삼십여년전에 뚝도주민이설립한 성의학교(聖義學校)가 대정이년 십월일일에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된이래 만이십오주년이 되엿다 그리하야 이학교관계자 일동은 그간에 이기쁨을 거행코저하엿으나 시국이다난한때인만큼 모든것을 생략하고 지난삼십일오후두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전중교장(田中校長)의 사회로 동교의 관계자와학부형의 다수참석으로 이십오주년기념식과 아울러 동교의훈도 최상룡(崔上用)선생의 근속십주년기렴식을동시에 거행하게되엿는데 최선생은 소화삼년도에 경성사범학교를 마치는동시에 동교훈도로 부임하야 아동교육에 만흔공헌이 잇슬뿐아니라 십년이란 긴세월을 하로와가티 헌신하여왓다고한다 그리고 경동소학교는 전기한바와가티 대정이년시월에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된이래 만이십오주년을맛게 된 오늘의 총수학이라고 할만한졸업생수로 본다면 일천이백명이나되고 잇슬뿐아니라 일홈년대홍수때에 교사전부를 유실(流失)당하고 현재잇는곳으로 이전신축하여오기까지에는 매년수삼회식 당하는 홍수에 쓰라림을 밧다가 겨우 금년부터야제방의 축조로인하야 마의홍수난을 면케된것이라고한다 순서에따라 내빈으로 경성사범학교 도변교장(渡邊校長)을비롯하야 고양군수대리 우정군시학(宇井郡視學)의와 수씨의 축사가잇슨후 최훈도의 답사가잇고 무사히 폐회하엿다

(사진은 교사와 최훈도)

長湍各面職員 指導會盛況

五大項目을指示協議

【長湍】장단군에서는 소화십사년도 농촌갱생계획수립사무지행만전을 기하고저 지난이십팔일부터이일간 군청회의실에서 관내각면당의서기를 소집하야 서군수통제하에 관계직원열석한후 다음요항에 대하야 지시와타합회를 개최하얏다

一、計劃樹立資料調査及更生計劃樹立方法

二、農村振興計劃實施要綱의習得

三、更生計劃實施上注意

四、更生計劃樹立의實習

五、事務打合

長湍小學校學藝會

【長湍】장단공립심상소학교에서는 지난삼십일오전십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성대히개최하얏는데 이십여회에 궁한 학예회는 학예회로서 천진난만한 동작에 만장관중은 도취되여 자못성황리에 폐회하얏다

明治町愛國寮 兵士의휴完備

애국부인회본부에서 명치정(明治町)불란서교회아래 설립중이든 진호이전상이군인의휴게소(사진)는 병사들의「홈―」애국료(愛國寮)는 드디어 만단의 설비가 완료되여 일요와 제일에외출한 병사의 휴식소로 또는 상이군인과 군인유가족의 사용될것이다 병사들의 휴식소에는 신문잡지축음기 장기등이 설비되여잇는외에 일반유가족을 수용하는 [illegible] 인피 유가족을 숙박식히는 [illegible] 만흔편의를 줄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은 최기순씨와기념비)

砂川橋起工式 廿九日에擧行

【長湍】장단군 [illegible] 사천(砂川)에는 지우금교각이 [illegible] 이어서 금번에[illegible] 우수는 [illegible] (長湍面)[illegible] 중면(中面) 장단면 [illegible] 교량가설을 도모하야 총공비일만이천여원 예산으로 [illegible] 지난이십구일오전[illegible] 사천방면에서 양군관계민의 다수 참석하에 기공식을 거행하엿는데 다행히 [illegible] 이로서 교통문제는 일소되엿다고 한다

淸雲、惠化兩校의 講習會員獻金

부내 청운(淸雲)공립심상소학교와 혜화(惠化)공립심상소학교의 [illegible] 원을 [illegible] 어보낸 [illegible] 국방헌금으로 바처달라고 본사에 기탁하엿다

새마을새氣分巡聽記 ⑯

待機의姿勢로잇는 京東方面의要地

京春鐵道의開通을압두고

祭基·龍頭·馬場 第一區町會

제기정 용두정 마장정은 불러가기로되여잇다 현재사무소는 현정회 총대인 경기현(鄭埼鉉)씨의사저인 제기정 사십구번지에두고 정회사무를 보게하고잇는바 제일구정회라는 정회를 조직한 [illegible] 세곳이 한데 뭉처서 정회사무를 보게하고 정회 사무에 자리도잡히고 정리도 어느정도까지 되여잇는데 하나를가지게 된 것인데아직도 완전한사무소한채 짓지 못하고잇는 [illegible] 은 마련해볼 요량이라고한다

×

정회내에잇는 호수는 제기정에 유백호 용두정에 유백호마장정 제일구에 약사백호 모두 한데합치고보면 일천유백호가량된다는데 이만하면 다른정회와 비겨 그다지 부끄럽지안흔 정도이지만 이제 업마안가서 경춘철도만개통되는날이면 이동네도 용산(龍山)이나되겟다 아직은 신개지로서 이에 파면 조선의수도대경성의 일부인가고 의심이날 정도이지만 니라하겟다 내천제가 시골태를 지못하고잇

山에 지지안는 번화한거리를이루게될것은 의심업는일이여서 주민들은 이경춘철도의 개통만기다리고잇다 그경우에는 현재의제기정 논밭에경거장이 드러안게되리라는데 이러케되면 엿태것황내여온 청량리쪽은 문제도안될것이다 정회의 본격적활동기도 이때부터일러로 일반주민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기대가적지안타고한다

×

현재 총대정기현(鄭埼鉉)씨미테 부총대가 셋이잇는데 제기정을 대표해서 조인근(曹仁根)씨 용두정을 대표해서 임상묵(林尙默)씨 그리고 마장정 제일구를 대표해서 김두익(金斗益)씨 이러케 부총대 세분이잇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가면서 정정회 사무를 운전해가고잇는데 아직은 빈촌이라 정회수입이래야 겨우매월 팔구십원정도밧게는 안되여 재정빈약으로자연히고생을하는모양이다 빈촌이라는말이낫스니 말이지

용두천(龍頭川)가로 아직도 토막이 사백여호는넘어잇서 이들토막민의 정리문제가 큰두통거리가되여잇는데 정회측 의사로서는 갈곳업는그들을 무리하게쫏츨수도업고하니 경성부와 특별히 교섭하여 적당한이주후보지를마련케한후에 이전비를 주어 자리를뜨게하도록 적극알선하리라고한다

×

다음으로 문제인것은 학교이다 현재 정회판내에에는 정규의 학교라고는 업마전에 이사해 나간 여자사범학교 하나가잇을뿐으로 그외에는 사립 무자격학원으로 동광(東光)숭인(崇仁) 금성(錦城)의 세학원이잇고 공립소학교는 한곳도 업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는수업시 종암(鍾岩)소학교로 자녀를 보내는수밧게는 업다는데 아프로 소학교하나쯤은 반드시 판내에 잇서야할터로 정회측에서는 이문제를 내걸고 불원간맹활동을 할것으로 기대가크다

柴草價格도公定

한짐에四十五錢으로

廣州郡當局處事에郡民感謝

【廣州】광주군은 전면적의팔할을점한산악지대임으로 광주나무장사라하면 근기지방에서 몰를사람이업는터이데 시초갑은도회지보다도 비쌀뿐더러 오전삼사시경이아니면 나무한짐을살수업스며 나무갑은전년에비하면 사할이상이나비싸서 각소비자들은 큰걱정중인데 이것은 전혀 나무장사들의 악선전으로 금년은 벌채허가를 아니한느니 하초와 며나무갑은 자기가밧고 시픈대로밧자는 악선전이나 당국은산림령에 준하야 부분적으로 하초와 낙엽채취를 금하며 군내소비와 군외수출을 짐작하야적의하게벌채허가를 하얏스므로 폭리를 탐하는 나무장사에게 철퇴를내렷는데 나무갑은 종래칠십전하던것을 최고사십오전으로 공정하고 지난이십구일부터 실시하기로 나무장사와 중개인에게엄명하얏스나 나무갑은 작년에비하면 팔구전이 비싼현상임으로 나무장사에게도 그리큰손해는되지아니하야 각소비자와공급자들은 당국조처에 대하야감사함을마지아니한다

山寨의大盜團

不意에襲擊捕盡

산중에 토굴을파고 비밀아지트를 만드러서 비밀히 가는 절도단——동대문경찰서형사대는 삼십일새벽네시 숭인정(崇仁町)산골 토굴을 포위하고 그산가운데 토굴속에서 곤한잠을자는 수원(水原)생 유원춘(柳原春)외두명을 검거하야다가 취조중인데 그들은 전기 토굴을아지트로하고 지난시월중순 약초정(若草町)백사십번지 서산송자(西山松子)의 비단에침입 귀금속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이십삼건 천여원어치의 범행을 자백하엿다

黑心의石炭商

東大門署에서摘發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일전오전 의주통(義州通)일정목구십일번지 석탄상 [illegible] 길차랑(吉次郞)[illegible] 근량을속여파는 부정석탄상이 경찰에잡혓다

三上簡易學校의 昇格運動에邁進

長興第二小學校로

【楊州】현재잇는 장흥심상소학교(長興尋小)는 동면일우에 편재되여 상당한거리를 [illegible] 삼상하(三上下石峴日迎里)재주학생은 거리가 십리내지 이십리에달하므로 통학에곤란이불소하야 삼상간이학교(三上簡易學校)를 설립하고 다소완화는되엿스나 그역재연수가 이개년에 불과하므로 졸업한학교유을바를수업서 대개가 군외 고양군벽제(碧蹄)또는 신도(神道)심상소학교로 통학을하나 이역 입학에곤난함으로 더더 곤란한다는 한칭 심하야 관외학생을 입학시키지안는 판계로 할수업시 이러나되는 장흥학교로 통학을하는 형편이나 연소한 칠팔세의 일이학년생이조석으로 사십리의왕복은 큰문제라하야 이불편을 가엽하여이는 학부형들은 기성회를조직하고 현재잇는 삼상간이학교를 심상소학교로 승격시키자는 동리가 분분하다는데 아프로 학교기본금도 출연되는모양으로 기부금이 출현되 모이는대로 판계당국에 진정을 하리라는데 일반면민의 기세는 자못 놉다한다

新電話番號簿配付

경성중앙전화국에서는 시월일일재의 신전화번호부를 근일중에는 배부하기로되엿다한다 그런데 이와동시에 목은전화번호부를 그대로계속사용하는때에는 전화번호가 틀리기수우며 번호가틀리게 전화를걸엇기때문에피차에 쓸데업는수고를하게되는일이적지안이할것임으로 새번호가 배부되는때에는 이것과 교환하야 목은번호부는 전화국에 려보내는것이 여러가지로보아서 매우조흔일이라한다

崔長興面長 記念碑建立

【楊州】양주군 장흥면(長興面)원면장 최기순(崔基淳)씨는 다년간 면민을위하야 공로가 불소한데 이번에 용퇴하엿스므로 이를 영구히 기념키위하야 기념비를 건립하고저 김선구(金善球)씨이하 면민다수가 발기가되여 주선중 수일전에 전부 완성되여 면민다수가 참석하야 지난이십구일 제막식을거행

는 삼십일오후다섯시경 대한병원소사실에 석탄박는 일꾼가마니주문을밧고한가마니에 네판식부족되게너허서 전후이십팔판을속여먹은것이 탈로된것인데 취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죄가나타나리라한다

交通禍一束

교통사고 이섯저섯——삼십일아츰 전에서 경영하는 오성(五星)택시마신규(馬信奎)(二二)가운전하는 경제구제일호 안국정(安國町)네거리를 지나가는 삼중정(三中井)경성본점판매부원곽갑월(郭甲月)(二一)를 서대문정(西大門町)일정목일백사십일번지 아메이라서 때마침 거리를 횡단하던 교남정(橋南町)경와직(郵元植)(二〇)이 광화문통(光化門通)이백구십번지 덕영(德永)괴혁상회 이주택(李周澤)(二〇)을 치여중상시켯는데즉시 부근병원에 옮겨서 응급치료중이다 ▲이십구일밤열시반경 여시경성전수여학교(餘恒老)(三)가는 화물서 충돌부아고로 향해가는 길에두에서 부딋치여 다리가부러저쓰러진것을 즉시적십자병원으로 옴겨서 응급치료중이다

出征軍人의家族 五十名招待慰安

開城貞和女校同窓會에서

【開城】지난삼십일 오전십시에 개성정화여학교(貞和女學校)동창회인 정우회(貞友會)에서는 모교의 강당을 빌어가지고 부내출정군인 가족오십여명을 일당에 초대해노코 위안회를 개최한바잇섯는데 모교 재학생들의 웅스러운유희와 독창연극등 이십여가지 연예가상연된바모다 선정병의 파강한운동을 표현한데에여서 일반군인가족에게 다른감격을 주엇섯다 동회에서는 가 모다자다시 성대한 초대연을 [illegible] 여잇서 마음속으로 동기들의성의를표하얏섯다

長湍農實校卒業生 第二回指導講習會

【長湍】장단공립농업실수학교에서는 현하전시체제하에 농촌진흥과 총후생산보국의정신 양면의수련함을 도모하고저 농촌중견청년인 동교졸업생을 소집하야 오는사일부터 육일간에 공하야 제이회지도강습회를 동교에서 개최한다고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廣島販賣所

位置 廣島市東觀音町一丁目

設置 昭和十三年十一月一日

顧問 李鳳大

販賣所主任 鄭鎬喆

記者 成泰佑

謹告

北京支局 總務兼記者 金在浴 記者 李昌武 右新任 北京支局 白

鐵原支局 記者 尹炳龜 同 諸宗龜 集金員 金宰哲 右新任 鐵原支局 白

下北分局 位置 慶南梁山郡下北面新坪 分局長 朴承澤 右新任 梁山支局 白

羅州支局 記者 昇熙龍 右新任 羅州支局 白

昌寧支局 記者 朴仁述 右新任 昌寧支局 白

石橋支局 分局長 岩永昌 右新任 鐵原支局 白

兼二浦支局 總務兼記者 金秉珠 右解任 兼二浦支局 白

龜浦支局 記者 金海佳 右新任 龜浦支局 白

春陽分局 位置 奉化郡春陽面市場 設置 昭和十三年十月一日 分局長 權重樂 右新任 奉化支局 白

金井分局 位置 奉化郡春陽面牛口峙里 設置 昭和十三年十二月一日 分局長 黃泳鍋 總務兼記者 朴泰碩 右新任 奉化支局 白

哈爾濱支局 總務兼記者 金禎鎬 右解任 哈爾濱支局 白

初等學院聯合大學藝會

時日 十二月二日午前十時

場所 府民館大講堂

主催 京城初等學院聯合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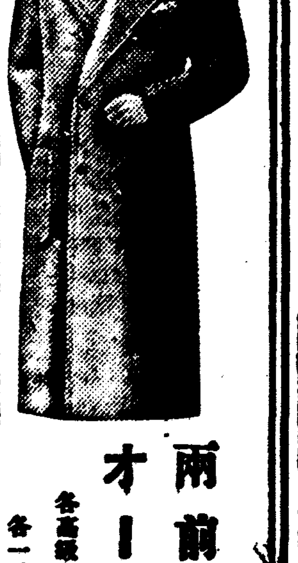
後援 朝鮮日報社

004191

直賣

此の値段で此の品が〔好評を戴く〕

防寒實用品〔良かつたつか安たつ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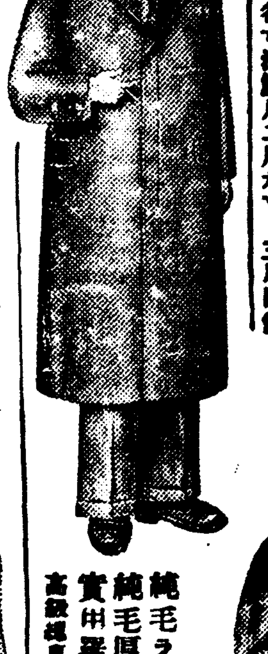
兩前型オーバ 各高級純毛付 各一枚値段

霜降本ラクダ純毛特上厚地 純毛メルトン特五〇號 金三十三圓

高級厚地メルトン 金二十三圓

大衆實用羅紗メルトン 金十八圓

各寸法著尺二尺九寸、三尺同値 金九圓五十錢



本ラクダラグラン型オーバ

五〇號純毛厚地 金二十五圓

四七〇純毛厚地 金三十五圓

各高級純裏付 各寸法著尺二尺九寸、三尺同値

片前型オーバ 各一枚値段

純毛ラクダ厚地 金二十三圓

純毛厚地メルトン 金十七圓

實用羅紗メルトン 金九圓

高級純裏付 各寸法著尺二尺八寸、二尺九寸、三尺同値

防寒三ッ揃セビロ服 三組合値段

二〇一號厚地 金二十五圓

二〇三號縞地 金二十八圓

各高級純裏付最大高級仕立別誂品同様

勞働防寒用 事務用寒地向

銃後の活動は是非此の實用ジャンバー服で

防寒羅紗ジャンマー 各一着値

純純ラクダ特品 金六圓八十錢

國防色メルトン 金三圓九十錢

特上メルトン 金四圓二十錢

實用メルトン 金三圓七十錢

大衆メルトン 金三圓二十錢

各色分寸法体重必ず御指下さい

絕對に安い

御注文は責任付

大量の自家製造で然も東洋一の生産本場時局に從ひ直接皆様にキット喜んで戴ぐ直賣を是非御利用下さい

銀行、會社商店員、個人、組合、團体御注文大歡迎

手紙で御申込下さい便宜上代金引換で送荷す御注文の際寸法、体重、色合は必ず御指定下さい

不向の節は返品御自由但し送料は買主負擔です返金又は品替御自由に致します

名古屋市千種區吹上本町一丁目

伊藤彥商店直賣部

電話千種九四四番

電略イトヒコ

振替名古屋一三六九二番

外出用厚生地羅紗バンド付グランドオーバー

無地地メルトン 金七圓五十錢

極地斜線 金六圓五十錢

丈鯨尺 二尺、二尺二寸同値 各一枚値段

詰襟服

高級サージ蟬裏 金十一圓五十錢

大衆サージ總裏 金九圓八十錢

各上下組合値

勞働防寒羅紗實用服

工場作業、事務用外出用大好評品

コール天代用羅紗仕立 極厚地仕立別上 金九圓八十錢

實用地仕立 金八圓八十錢

各上下裏附組合値段

セーラー型ズボン 各一本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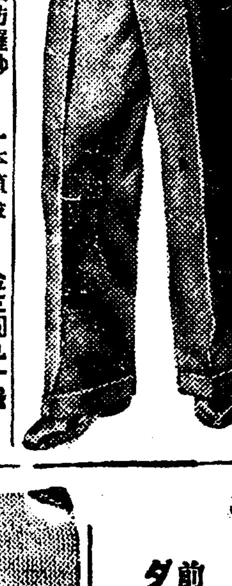
國號サージ 金三圓九十錢

特號サージ 金四圓九十錢

防寒メルズボン 金三圓五十錢

極上ウーステット 金五圓五十錢

小倉純コール實用品 全 金一圓九十錢



乘馬型羅紗ズボン 一本値段

國防羅紗 茶紺羅紗 全 金三圓九十錢

防寒實用品 金三圓七十錢

勞働、外出用大好評品

防寒毛メリヤス

再織毛糸 トックリ型 アンダー 金二圓二十錢

高級純毛アンダー 金三圓九十錢

高級防寒トックリ型 金三圓九十五錢 同値

外出用毛オーバ 太織厚地 大特價一枚値 金三圓九十五錢

毛メリヤスコットン

一號品 一枚値 金三圓六十錢

二號品 全 金三圓九十八錢

各上着ズボン同値御指定下さい

毛チョッ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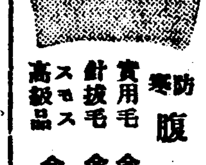
前割ダルマ 各一枚値段 金一圓九十錢 金一圓七十錢

防寒腹卷 一枚値

實用毛 金六十錢

針拔毛 金一圓八十錢

スモス高級品 金二圓二十錢



再織メリヤス防寒ズボン 一枚値 一圓九十錢

防寒羅紗チョッキ 厚地 大特價一枚値 金一圓七十錢

メルトン仕立

赤丸極厚地チョッキ 大特價一枚値 金一圓八十錢

寒地向好適品

厚地綿入寒地向

毛ペッチ 一名部腰卷

婦人防寒スモス厚地毛メリヤス 金三圓五十錢

アセ厚地メリヤス 金三圓三十錢

國防婦人事務服 文化コート

ステサージ特品 金二圓四十錢

ユニサージ特品 金四圓三十錢

各色合は國防色紺、エビ、グリン御指定下さい

防寒首毛幼年オーバ

メルトン總裏付 寸法尺四、尺五、尺六寸五才六才七才向同値 金三圓九十五錢

ラクダ總裏付 寸法尺六、尺七、尺八寸、七才八才、九才用 全値 金六圓五十錢

各一枚値寸法年齡御指定下さい

長篇小說

薄命 (152)

韓龍雲 作 鄭玄雄 畵

결혼 五〇

「그게야 소경 개천나물하기지 소용잇나요 다 제 불찰이지요」

하는 대철이는 순영이 얼굴을 보더니

「순영씨는 그새 얼굴이 나어진것 갓구니요」

하고 웃는다

「나진것이 뭐야요 요새 며칠동안에 좀 빠젓는데요」

순영이는 손바닥으로 두볼을 비비면서 웃는다

「웨 그러서요?」

「사람이 섬미가 망해서 그러치오 선생님에게 편지를 하고 답장을 기다리노라고 그랫답니다」

하는말을 비롯하야 순영이는 자기의 사정을 낫낫치 말하야서 언제던지 결혼하야도 거리낄것이 업다는말과 하루라도 속히 작부생활을 면하는것이 소원이라는 뜻을 분명히 말하얏다

대철이도 자기의 사정을 말하는데 서울가서 곳 금광출원을 한뒤에 부득이 광산 잇는곳으로 가게되어서 다시 오지못한 말과 그사이에는 시굴할 자금을 변통하기 위하야 이리저리 다니다가 순영이 편지를 보고서 와다는것이엇다 대철이는 순영이말에 동의하야서 하루바삐 결혼하고 시프다는 말을 하면서도 광산을 경영하랴면 자금이 필요하고 오라가락하게 될터이즉 결혼한뒤의 가정생활이 문제라는 뜻을 은연중에 주장하얏다 그러나 순영이는 광산을 경영하는데 가치 따라 다니며 고생을 할수도 잇고 그러치 못하야 자기가 혼저잇게 되는때라도 자기의 생활은 하다못해 바누질품이나 빨래품을 파러서라도 스스로 담당하야서 대철이 일하는데에 방해를 끼치지 아니할것을 말하면서 결혼한뒤에야 무런 곤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대철이를 떠나서 작부생활을 하는것보다는 낫다는뜻을 여러번 되푸리 하얏다

그날저녁에야 두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불원일하고 한 일주일뒤에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하얏다 이소문이 퍼지자 인천 바닥에는 한 이야기거리가 되엇다 순영이와 대철이 판게 꼿순영이가 원산바다에 빠젓슬때에 대철이가 건저 준 일을 비롯하야 순영이가 그사이에 잇지 아니 하고 은혜를 가프라고 하든 일과 우연히 해수욕장에서 만나던 일화 마침내 그 두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인연에 대하야 누구라도 기이하게 여기지 안는 이가 업고 순영이가 업서다 그러하야 순영이게 다니던 손님들에게는 돈이나 밀육이나 화장품 가튼것을 보조하는 사람이 만하얏고 결혼 피로연에 대한것은 홍숙자의 집에서 담당하기로 하엿다

기일이되매 오전 열한시에 그들의 결혼식을 건봉사 포교당(乾鳳寺布敎堂)에서 거행하게되엿는데 정각이 되매 종 소리와 향 연기로 청정한 도장을 장엄한 뒤에 부처님에게 귀의(歸依)를 맹서하고 포교사의 정중한 주례 아래에 한쌍 원앙의 인연이 매저지게 되얏다 숫굿찌를 틈이 업시 드리선 구경군 중에서 꼬춤 뿌리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적지아니하얏다 순영이는 그러케 기쁜마당에서 도라가신 부모를 생각하고서 아무리 참을내야 참을수업는 눈물이 면사포 밧그로 비치는것을 본 사람은 잇섯지마는 그뜻을 아는이는 부처님밧게 업섯다 순영이는 그중에도 속으로 염불을 하면서 자기들의 행복을 빌고 도라가신 부모를 축수하고 홍숙자의 행복도 빌고 자기와 친한사람의 행복까지 빌엇다

식을 마치고 숙자의집에 와서 피로연을 하는때에는 여러사람의 입에서 순영이에게 대한 칭찬과 숙자에게대한 칭찬이어울려 버러젓다 그중에도 기쁜 기색을 가지면서도 섭섭히 생각하는것은 홍숙자엿다 그들은 원래 대철이 사정이 사정이어서 서방을 정하얏다

라디오 프로그람

二日(金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獻立 經濟市況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經濟市況(京取)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노벨受賞者 퍼-ㄹ벅크」 毛允淑
◇同二時 뉴-스 戰況紹介
◇同六時 吹奏樂 一、序曲 체네르作曲 二、斥候隊 三、圓舞曲 四、名譽와勳章 체네르作曲 中央中學校吹奏樂部 指揮 朴 ?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動物의過冬」 同德高女 李 德 象
◇同七時 뉴-스 放送美談 天
◇同七時三〇分 野談「玉笛의命脈」 金 ?
◇同八時(東) 피아노와管絃樂 피아노協奏曲 E短調作品十一 쇼팡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第二樂章 로만스 第三樂章 론드 피아노 原 智惠子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제프 로-젠슈톡크
◇同八時四〇分 西道歌謠 一、 碧海歌 二、 愁心歌 三、 山念佛 四、 자진山念佛 五、 자진難逢歌 閔花中仙 孫 ? 蘭
◇同九時 時事解說「戰爭과消費」 東亞日報 高 永 煥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日本 明日豫報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經濟講座(三七) 宋 今 璇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支那語講座
◇午後〇時五分 (城)新曲
◇同六時 (京)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大)歌謠
◇同七時四〇分 座談會(自南京)
◇同八時 (東)피아노와管絃樂
◇同八時四〇分 (城)義太夫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三日(土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午後〇時五分 (東)子供의時間(第四十九回)
◇同一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醫學博士 金 東 益」
◇同四時 뉴-스 戰況紹介
◇同六時 童謠 一、青鳥 二、青鳥 三、青鳥 四、青鳥 五、青鳥 六、青鳥 七、青鳥 八、青鳥 하모니카 ... 李 ? 作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피아노演奏 指揮 金 永 ?
◇同六時三〇分 童話「金錢과人」 安 浩 相
◇同七時 뉴-스 戰況美談 天
◇同七時三〇分 ...
◇同八時 라디오코메디「蝶花一」 李 ? 作
◇同八時三〇分 ... 一、세 打鈴 二、大字뿐이 三、... 打鈴 四、계고리打鈴
◇同九時 音律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午前七時一分 基礎英語講座
◇午後零時五分(東)子供第三(人)歌-뜨
◇同六時(大)童話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大)歌謠
◇同八時(東)講演
◇同八時一〇分(東)小說
◇同八時四五分(東)演芸

時代的偶然의 受理

—事實에 대한 精神의 態度—

② 白鐵

偶然的으로 致來된 時代의事實을 文學者가 受理하야 意味를加해본다는것은 前項에서말한바와가티 그事實에對한 하나의 精神의 態度를 意味하는것이다 聰明한 精神은 어떠한 複雜한 事件을 受理해노코 境遇에도 能히 그事件을 整理하고 하나의 正義로운 答案을 決算해내는법이다 今日의 偶然的인 現實에對해서도 知識人은 그事實이상의 眞理를 發見하야 親히 그眞理를 建設해가는 主體로서 精神에 信賴를 두는것이 必要한일이다.

이時代와가티 아무리 物質과 行爲가 騷亂스럽고 國際的인 諸問題의 危險이 交錯된때에잇서 眞理를 探求해가는이 一見 漠然한 外觀을보이는 그속에서도 精神의 傳統이 아주 斷絕되거나 精神이 未來와 全然 呼吸을 通하지못하리만치 直接的인 危險이 全時代의 精神을 차지할수업는것이다. 어느구석에나 반드시 精神이 뿌리를밟고 한오래기식 기우를 펴가면서 眞理를 建設해갈 餘地를 남어잇는것을 나는 확실히 體感으로써 느끼고잇다 그信賴우에서 나는 오늘에도 精神의

自由世界를 내體內의 한구석에 設定하고잇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同僚들도 各各自身의 體內에 設定하는 世界가아닐까 結局나는 今日은 事實에대하야 精神의 世界를 設定할時代 적어도 그것을 前提하고 하나의 準備時代임을 생각한다 지나간時代의 낡은精神 그危機의精神에 대해서가 아니오 現代와 未來에잇어 人間이 가질精神 世界文化가 가질만한 精神을 새로운 思想을 通하야 豐富히 해가는 問題다. 今日의 偶然과 俗된事實에 대하야는 精神을가지고 다스리지안코는 그것을 整理해갈 道理가 업는것이다. 하면 지금은 事實에 世紀의 全

意味를 부처서 그것을 重大視하는 傾向이 잇는것도 잘알고잇다. 우리文壇에서도 林和氏가튼분은 今日의 事實性을 直視하야 知識人으로서 이時代에 處하는 自身의 態度를

今日의 事實을 하나식 是認해가는것이 自己의 任務라고 말하고잇다. 林氏가 요지음 創作界公論을 通해서나 口頭로서 말하는 世態文學의 傾向을 重視하고 批評態度로서는 解釋을 모토로하는것은 그理由에서다.

이와가티 今日의 事實을 重히 解釋하는것은 한편 當然하기도하다. 무엇보다도 今日은 事實의 世紀, 事實이 이時代의 主人公이기때문이다. 우리들은 어떤 作品을 읽을때나 그作品의 主人公을 無視할수는업다 워선 그 主人公우에 一次 머무르는것이 取捨選擇이다 그러나 事實은 어데까지나 事實이다 事實은 結局 精神과 直面하지안코는 意味를 갓지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事實을 살리는데는 精神의 意味를

因 日의 時代를 受理하는 努力이 하나의 眞理를 建設하는 問題라면 그것이 하나의 事實主義와 運命論에 빠저서는 不可하다 事實 代의 偶然에 대하야 事實과 偶然以上의 意味를 찾고 또는 그偶然과는 反對의 地點에 하나의 結論을 찾는것이며 여기에 이時代에 對한 文學者의 프레시블한 精神이 잇는것이다 지음 東洋의 現實에 대하야 어떤 學者는 그것이 內部와의 連絡的인 關係를 가지고 온것이 아니라 外部에서 하나의 偶然으로 온것이야 解決前의 問題로서 出現하는 方法이라는말을 한것이 잇는데 그것은 하나의 誇張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들은 하나의 事實에 대하야 그 以上의 意味를 創造하고 結論을 엇는것이 精神의 能力 또 態度다.

今日의 우리 東洋現實은 偶然으로 일러진 커다란 事實이거니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다만 事實 그것에 머저서 解釋하는 事實로서 受理하는 限 우리들에게 運命的인 觀念과 消極的인 逃避이상의 意味를 어들것이 업다 우리들은 거기서 겨우 한개의 果論을 찾고 悲慘的 人世界觀을 設定하는데 머무르는것이다 今

事實에 主體的인 意味를 부처서 努力하는 데도 배이콘이 이른바 人類의 偉力과 影響力을 이世界에 復興하고 擴張하려는 努力은 얼마나 엄숙하고 健全한 努力일까?

事 實을 다만 事實로 解釋하는데 멋고 그 以上의 意味를 차저내지못하면 우리들은 하나의 事實主義에 떠러지고말것이다 또한 今日 우리文壇속에 沈滯되여잇는 一聯의 低調的인 분위기는 그事實主義에 同伴된것이아닐까? 事實을 解釋하는것이 事實主義의 限 그解釋은 凡俗한 平面에 멋고 精神은 安易한 低調에 떠

朝鮮古典文學管見

—特히「春香傳」을 圍繞하야—

⑦ 徐斗銖

어려운것이 李朝도가우려드는 前夜이다. 따라서 儒敎的要素의 再來에 結果한 從來의 모든 觀念에 動搖가 생기게되엿스니 어때써 將來할 次期의 萌動을 內藏한 動搖를 스스로 意識치는 못하면서도 從來의 힘 官力이랄가 兩班道德가 그힘의 衰退에 對한 盲目的觀念에 "파라독시칼"하게 보우짖게되며 제 스사로 動搖하야 自家撞着이것까지도 이존재 人間性의 뿌리가끈 根源에 도라가랴는것이 李道令이 『그後이를 歌唱하는 사람들은 되리만치 뿌리가 기워진것이다.

며 自然, 春香이다. 그리고 그다음 모든 人物이 春香傳이 成長文學이니만큼 차츰차츰더 高度한 金合從君이 말하는바와가티 비록 政治的權力을 잡지못하엿다할지라도 封建的舊勢力으로는 制御하기 어려운 新勢力을 일우는』市民卽 中人들이『스사로 封建的舊勢力에 對한 懷想의 反抗을』저도모르게 叢顯시키고잇다—無意識이 그리

一般民衆의 처에도 參與치못하든 妓生廣大들의 손으로 이러한 藝術領域에서만 되는대로 敷衍해서 氣焰을 吐할수잇기때문에 支配的思想과의 衝突 咀呪 輕蔑 反抗 諷刺』가 잇는것이 內地의 狂言에 보여지는 一類의 그것을 硏想시키리만치 아니 오히려 그보다 數層의 濃度로 지러나려왓다 그러나 그내의 아모런 色다른 質的抗拒는 업섯고 아직 自然이 그리고 表現가 大團圓을 짓게되엿스니 이에서 所謂 "純情小說"이나 "艶小說"이나 하는 觀點의 相異가 생기게 되나 이는 觀者의 觀察의 相異而已오 春香傳은 그대로 春香傳 그대로이다. 그러나 諺文이 創製되여 文學이 이 手段을 表現에 쓰게되자 흔히 漢詩漢文을 衣裝한 從來것과는 달리 아직 얼마間 黑月文學的인

點이 배여잇기는하나 純全히 風俗的도 아닌 그러면서도 風凰한 人間이 作定한 흙에 들어버리려는 구석이 업는 말하자면 『어떠케할까』하는 人工的人倫의 問題를 膨脹하게 당되는 어느사이엔지 엄형하야 人間의 自然的存在性에 솟그머니 제도모르게 도라가는 一面 이 春香傳에 뿌리박고 잇는 基調이다 權威에 對한 服從이면서도 結局은 信奉까지에는 엄청나게 相距가 먼 探索가 春香이 보여주는 한 性格이 아닌가 엿여진다 그러므로 春香傳이 보여주는 詩的想像力은 決코 飛翔의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해서 漫淡的도 아닌 自初至終 엄망하는 中庸을 嘆息을해도 허의 良嗚而已인 線의 波動이 全體를 支配하고잇다 決코 春香傳은 艶冶說만 되기도 바라지 안엇스며 贈紙小說을 處하기도 所願이 아닌것이 그가 가진 本來의 性格의 한 顯露이기도하리라. 이에 春香傳이 가진 問題性이 問題되여진다. 나는 이말을 박구어 思想性이라고 보아도 無妨하다 그리하야 그것이 春香傳에 잇서서 어떠한것이가라는것은 讀者에 맛기고 잇나업나는것을 感覺한다면 그가 지니고잇는 感覺性 或은 情趣性보담은 점신 暗示하는 問題性이 지러보인다. 情趣性과 感覺性이 結合되여 具體的文學形象을 이루어저 잇스면서 缺乏지안흔 問題를 더지고 잇다.

그러나 結局 어것도 엄명하는 朝鮮的 樣式 價値性으로 플不잇다고본다 어떠한 點은 어떠가진 古典文學에 適用할 "와쏭포-트"이기도하리라.

白軍行伍가 片片玉碎에 黑軍奏功이 庶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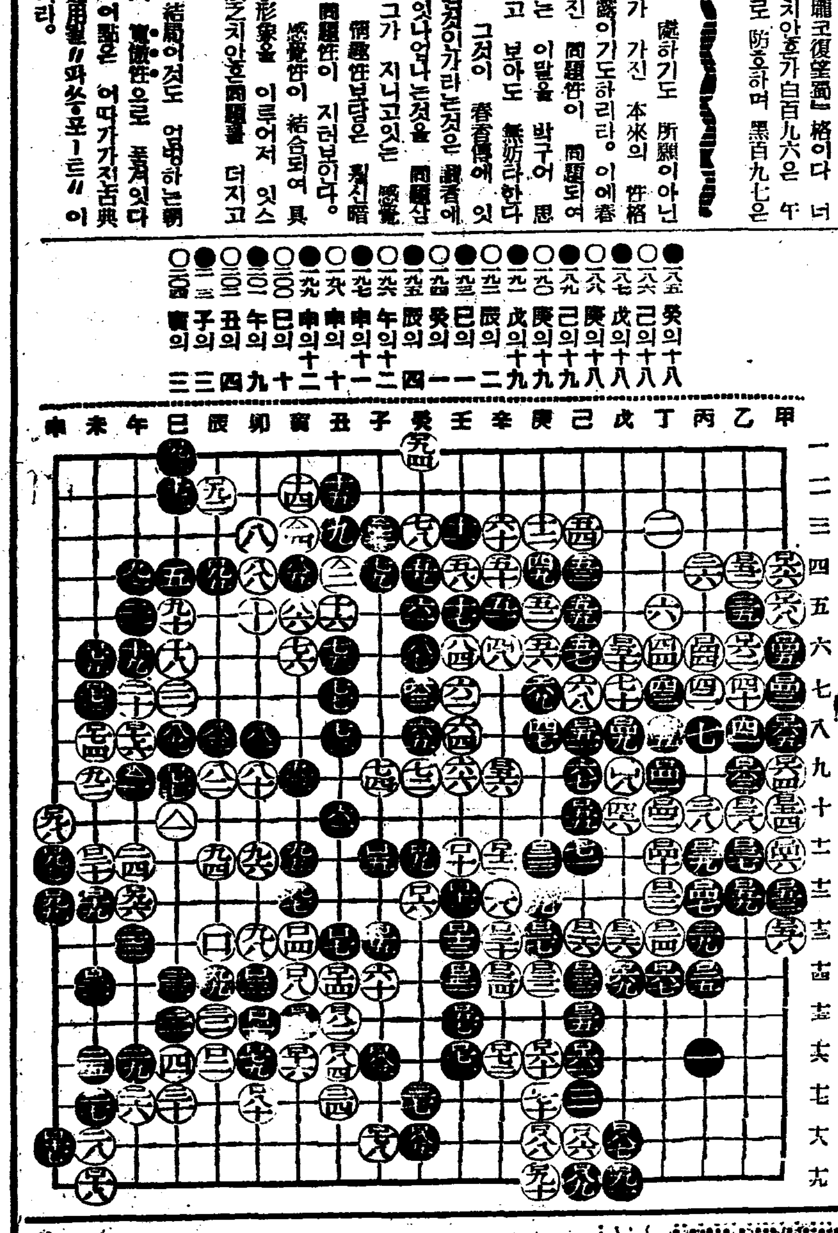
權秉郁

國手對抗碁戰 (11)

白 閔仲植
黑 權載衡
(四目半込出)

黑百八五(癸)의 一八쓴것은 뭇내기로 써는 有效하며 白百八六(己)의 一八(刎)재처는것도 恒用의 手法이다 黑百八七受삐는것 白百八八(己)잇는것 모두 例의 順應이고 黑百八九와 白百九〇도 그자리 그대로 다 義着이되엿다 白은 참으로 別妙手가 날만이 이엇서 觀戰하기도 無味할 眞味라 이것은 도리어 坡城秋夜月에 玉碎를 免할듯한 感懷가 一層더 간절하다 黑百九一도 뒤를 따라 이엇다 白百九二辰의二는 細碁에 適切하며 黑百九三은 巳의一로쓰는것도 自家를 安保한바이다 白百九四癸의一도 自戶三四家를 널리고 뚜뒤餘地가 有하니 手法만은 勇하다 黑百九五는 辰의四로 侵入하니 소위『得隴코復望蜀』格이다 너무 過貪치안혼가 白百九六은 午의一二로 防호하며 黑百九七은 申의一二로 재치고 白百九八은 申의一〇으로 바다 黑百九九는 申의一二로 이으니 互相酬應인듯하나 黑이 二番채 先手를 失하엿다 白二百巳의一〇은 黑軍尖込후(防着) 딱부처노흐나 黑二百一은 午의九로 점점 相甌食之하니 그 稍鋒합을 어찌할까 白二百一는 丑의四에 兩衝하니 못내기 잔수만으록 切하다 黑二百二은 子의二를 救援하게되엿다 白二百四는 寅의三에 黑一孤軍을 擒取하엿스나 前回北中大敗의 萬一도 雪辱이 되지못하엿다 現局을보와 白은 旣傾之勢를 다시 挽回코저 冒陷的 奇襲를 陣처보앗스나 黑陣이 元是 堅固하므로 白軍의 行伍가 도리어 整齊치못하야 片片玉碎할 形態이니 보기에도 辛辣하다 末回를 볼가—

●一八五	癸의十八
○一八六	己의十八
●一八七	戊의十八
○一八八	庚의十八
●一八九	己의十九
○一九〇	庚의十九
●一九一	戊의十九
○一九二	辰의二
●一九三	巳의一
○一九四	癸의一
●一九五	辰의四
○一九六	午의十二
●一九七	申의十二
○一九八	申의十
●一九九	申의十一
○二〇〇	巳의十
●二〇一	午의九
○二〇二	丑의四
●二〇三	子의三
○二〇四	寅의三



藝苑消息

◀梁世雄氏(朝映技師)는 "새出發"의 撮影을 마치고 編輯關係로 二十九日渡東

朝鮮映畵製作年代譜 ①

第一回映畵祭準備常務委員會調査

	年代	作品名	會社名	卷數	尺數	監督·撮影	出演
1	大正十年(一九二一年)	☆月下의盟誓	朝鮮總督府遞信局	八	一、〇二二	監督 尹白南 撮影 太田同	李月華 權一淸
2	大正十一年(一九二二年)	☆春香傳	東亞文化協會	九	一、一四六	監督 早川松治郎 撮影 同	金肇盛 崔淞完
3	大正十二年(一九二三年)	☆海의秘曲	釜山朝鮮키네마株式會社	八	一、一八〇	監督 高佐貫長 撮影 [illegible]	安鍾和 李周璟 李月華 李彩田
4	大正十二年(一九二三年)	☆薔花紅蓮傳	京城團成社	八	一、三二七	監督 金永煥 撮影 李弼雨	崔炳龍 申綱紅 禹定植
5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悲戀의曲	東亞文化協會	七	一、五〇〇	監督 早川松治郎	金肇盛 文秀一
6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雲英傳	釜山朝鮮키네마株式會社	六	一、二〇九	監督 尹白南 撮影 宮下	安鍾和 李周璟 金雨燕
7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神의粧	釜山朝鮮키네마株式會社(檢閱却下)			監督 高佐貫長 撮影 西川秀洋	兪守驊 李彩田
8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雙玉淚	高麗映畵製作所	八	一、三三三	監督 李龜永 撮影 李弼雨	金少珍 趙天星
9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雙玉淚後篇	高麗映畵製作所	七	一、二九五	監督 李龜永 撮影 李弼雨	金少珍 趙天星
10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沈淸傳	尹白南프로덕슌	七	一、三九五	監督 李慶孫 撮影 西川秀洋	羅雲奎 李圭卨 朱仁奎 崔德先 朱三孫
11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동내의호걸	釜山朝鮮키네마會社	二	四〇〇	監督 高佐貫長 撮影 李周漢	兪守[illegible]
12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흥부놀부傳	東亞文化協會	五	一、〇二二	監督·撮影 早川松治郎	文秀一 金肇盛 [illegible]
13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開拓者	尹白南프로덕슌	六	一、四五二	監督 李慶孫 撮影 西川秀洋	金靜淑 朱仁奎 南宮雲 鄭基鐸
14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黑과白	金澤潤映畵社	七	一、〇三八	監督 金澤潤 撮影 西川秀洋	金澤潤 羅雲奎
15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長恨夢	鷄林映畵協會	八	一、五〇〇	監督 李慶孫 撮影 西川秀洋	沈薰 姜弘植 朱三孫 鄭基鐸 金靜淑 羅雲奎
16	大正十三年(一九二四年)	☆山寨王	鷄林映畵協會	五	九〇八	監督 李慶孫 撮影 西川秀洋	李白水 鄭基鐸 南宮雲 金靜淑 姜弘植
17	大正十四年(一九二五年)	☆籠中鳥	朝鮮키네마	五	一、一四一	監督 李圭卨 撮影 加藤恭平	李圭卨 羅雲奎 卜惠淑
18	昭和元年(一九二六年)	☆아리랑	朝鮮키네마	七	一、五九九	監督 羅雲奎 撮影 加藤恭平	申一仙 羅雲奎 朱仁奎 南宮雲
19	昭和元年(一九二六年)	☆風雲兒	朝鮮키네마	七	一、七九五	監督 羅雲奎 撮影 加藤恭平	金靜淑 羅雲奎 朱仁奎 南宮雲 林雲鶴
20	昭和元年(一九二六年)	☆鳳凰의면류관	鄭基鐸프로덕슌	六	一、四〇一	監督 李慶孫 撮影 韓昌燮	申一仙 鄭基鐸 姜香蘭
21	昭和二年(一九二七年)	☆먼동이틀때	鷄林映畵協會	八	二、一四一	監督 沈薰 撮影 濱田	姜弘植 韓炳龍 申一仙 金靜淑
22	昭和二年(一九二七年)	☆落花流水	金剛키네마	八	二、一九六	監督 金永煥 撮影 李明雨	李源鎔 卜惠淑
23	昭和二年(一九二七年)	☆들쥐	朝鮮키네마	七	一、六八〇	監督 羅雲奎 撮影 加藤恭平	羅雲奎 申一仙 朱三孫 尹逢春

江湖의絕讚을밧는名著案內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出版部發行
振替 京城五八七八番
電話(本)一一九一一番

現代朝鮮文學全集

三十年間朝鮮文學의總收獲!
全七卷 全集完成記念大賣出!!

第一回配本 短篇集(上) 三版大發賣中
第二回配本 詩歌集 三版大發賣中
第三回配本 短篇集(中) 再版發賣中
第四回配本 隨筆紀行集 再版發賣中
第五回配本 評論集 再版大發賣中
第六回配本 短篇集(下) 再版大發賣中
第七回配本 戲曲集 再版大發賣中

四六版크로쓰洋裝豪華美本 全冊各九포인트一段組 每冊平均三百六十餘頁 用紙最高純白洋紙使用 一冊定價一圓二十錢(送料二十二錢也) 七冊一時拂七圓(送料本社부담)

只今도一時拂의 七圓特典!! 只今이라도 七圓만보내시면 全冊에 七圓特典을해드립니다 그리고 送料全部本社에서부담하오니 어려분은지금곳注文하시오

新選文學全集 全四卷의

一回配本『朝鮮文學讀本』發賣中

이朝鮮文學讀本은 朝鮮文壇總出動으로 그들의 絕對自信을가지는 珠玉가튼 名篇 一百三十餘篇을 網羅한것이니 實로 朝鮮에 처음되는 大名文集으로 家家戶戶에 秘藏할 新版 古文眞寶이다 文學讀本으로 人生讀本으로 또는 作文讀本으로 千秋萬代에 傳할 一大寶典임을 斷言한다 絕版되기쉬우니 속히 注文하라。

二回配本『新人短篇傑作集』發賣

『이新人短篇集』은 朝鮮文學을 世界에 宣揚시킬 偉大한責務를 가지고 孜孜努力하는 新人들의 絕對自信잇는 傑作을 收錄하니만치 天才朝鮮의 文學的發露로써 우리文壇에 자랑이안일수업다。新進名星十一名의 大創作集이다。

三回配本 朝鮮兒童文學集 十二月一日發賣

四回配本 女流短篇傑作集 明年一月一日發賣

四六版豪華洋裝 크로쓰銀字入大美本
一冊定價一圓二十錢 四冊一時拂四圓五十錢

結核豫防讀本

이結核豫防讀本은朝鮮의二十六歲된博士가總執筆한것으로結核治療의秘方을公開한것이다結核患者는速히이冊을보고更生의길을차저라一冊定價七十錢也送料一冊六錢振替先金

長篇小說 愛慾의彼岸

李光洙氏의絕對自信잇는大名作으로이小說이朝鮮日報에連載되어讀者들을사로잡은것이다初版이精裝이니速히購入하시오一冊定價一圓五十錢送料一冊二十九錢振替先金

現代朝鮮 女流文學選集

一冊定價一圓 (送料二十二錢)

四版發賣中

江湖의絕讚을바더 이미 四版을 發行한것이니 朝鮮女流文人總出動으로 詩、隨筆、紀行、小說等을 모운 이冊은 實로우리出版界의 大盛事이다

小說 그의自敘傳

春園李光洙氏의 會心의 大名作으로 內容으로나 外裝으로나 만흔歡迎을밧고 再版이 出하엿다。아직까지 이冊을 보지못한사람은 速히購入하라(一冊定價一圓三十錢)

世界傑作童話集

朝鮮文壇의 一流十五作家가 世界童話中에서 가장 자미잇고 가장 敎訓되는 名作만을골라 이冊을 만들엇다。이제 三版出來속히 購入하시오(一冊定價八十錢送料十六錢)